다가 오는 메시아의 나라

신약성경의 난제에 대한 해답

안토니 버저드경

레스토레이숀 펠로우쉽, 2002 (3호판)

Restoration Fellowship, 2002 (3rd edition)

www.restorationfellowship.org

목차

서론 5

소개.....9

제1부: 예수님과 메시아의 미래

1. 기독교 신앙의 핵심 – 하나님의 나라 13
2. 선지자들이 기다리는 나라.....18
3. 전통적 유대인과 기독교의 해설.....24
4. 세 번째 해답.....27
5. 전통적 기독교의 비정치적 메시아관.....30
6.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미래의 정치적인 나라.....33
7. 귀인의 이별과 귀환.....36
8. 예수님, 유대기독교인의 메시아관.....38
9. 전통적 기독교의 막연한 미래의 나라.....42
10. 미래의 나라를 없애버린 신학.....44

제2부: 교회에서 사라진 성경적 기독교인의 메시아관

1. 메시아를 통한 구원.....48
2. 이 세상과 오는 세상.....55
3. 코스모스(세상)의 모순.....57
4. 반메시아적 경향의 현대신학.....59
5. 영지주의의 영향.....64
6. 신화적인 미신타파.....67
7. 하나님 나라가 없는 복음의 전파.....68
8. 이방종교와의 혼합.....76

9. 신약성경적 기독교를 회복하는 소명.....79

10. 발전을 저해하는 거대한 장애물인 전통.....82

11. 신약성경의 예언 86

12. 침례 (세례) 95

13. 예수님과 인생의 만사형통.....98

14. 결론.....111

성경 목차

(5p)

서론

. 예수님은 누구신지 또 누구이셨는지? 그리고 그의 가르침은 무엇인지의 질문은 아직도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출판사들은 대중적이고 학문적인 표현으로, 소위 난제라고 불리는 문제점에 대하여 계속해서 방대한 분량의 지식을, 홍수처럼 시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죽은 후에는 "하늘로 가기" 때문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긍휼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과는 다릅니다!)의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죽으면 하늘에 간다고 말씀하신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또한 고통스러운 "영원한 지옥"을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다시 오실 때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것을 기독교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현대 교회에서 환영을 받으시겠는가? 환영을 받으신다면 수백개의 교단 중에 어는 교단에서 환영을 받으시겠는가?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의 물결은 잘못된 "임시방편"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하었고, 그 결과로 많은 실망을 초래하였습니다. 성경의 한 구절을 암기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신앙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만투라(마술적 주문) 같은 것으로 사용 될 수도 없습니다. 성경구절 하나를 선전하기 위하여, 5백만권의 책을 판매하는 것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진리 (참)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노력과 탐구와 연구가 필요합니다.

. 필자는 예수님의 지난 행적의 기록은 일관적이고 신뢰 할만 하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1세기의 유대인들의 상황에 훌륭하게, 그리고 무리 없이 조화를 이루시는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놀랍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세상의 대역사를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수세기 전에 그 출생이 이미 예언되신 예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스러운 약속에 의해서, 성경에서 말씀 하시는 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에 속한 최고왕권의 귀인의 왕림을 보증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독자들이 이해 할 수 있도록 서술 할 수 있는 숙련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만난 예수님과, 예수님의 행적들을 후대에게 전달하려는 그들의 열정은, 모든 성경기록들에 명료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전달하려는 성경저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때로 교리적 교단들에 의하여 교회가 분열되고 있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안타깝습니다. (전통화된 불신앙이 문제이지 신약성경의 기록은 문제가 없습니다.) 현대 교회에 만연하고 있는 혼란은 우리의 잘못이지 신약성경의 저자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성경은 20세기 현대의 서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유대인들의 서적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시고, 예수님의 신학은 유대인의 성경인 구약이 그 뿌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로 예수님의 존재를 알 수 있게 하는 중요하고 필수적인 실마리입니다. 신약 (마태복음 1:1)의 기록처럼 예수님은 다윗과 아브라함의 후손 이신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명료하고 이해하기 쉬운 요약된 설명은, 예수님의 존재와 그의 사역을 이해 할 수 있게 하는 실마리 입니다.

(6p)

그리스도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메시아의 사명은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직분은 전적으로 정치적인 개념입니다. 이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신약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전체를 종합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나 초현실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정치운동에 가까운 형태로 그 분의 신정국가 (하나님의 정부)의 수립을 부르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목표는, 그 분께서 아버지라고 칭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정치적인 목표를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래 전부터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메시아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현 세상의 인간통치가 변화되어서, 이스라엘이 평강과 번영 된 사회의 중심이 된 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약속의 땅 (사무엘하 7장)과, 온 세상에 펼쳐질 경이적인 축복에 대한 그 분의 열정을 표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히브리 성경 (구약성경)은, 세상의 새로운 역사가 다가오고 있는 비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현세상의 잘못 된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습니다.

.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각 하는 것은 (특히 성경을 읽고 이해하려는 분들), 교회들이 예수님은 누구시고, 무슨 사명이신 지에 대한 의미를,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 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신앙인들 나름대로 상상하여 이해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람이 어떻게 하면 착해 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윤리선생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때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현재의 정치적인 배경으로 해석한 사상으로 자기들의 영향력을 행사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정치조직을 전혀 간섭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분은 "신정정치주의" 자로서 초지일관, 때로는 위협적으로, 때로는 약속으로서, 미래에 다가 오는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구원복음의 핵심주제입니다. 다가 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확신은 유대인의 소망이 된, 이스라엘 선지자들의 예언을 근거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신 신명기 18:15-18, 사도행전 3:22, 7:37을 근거로 예수님을 "약속하신 선지자"로 믿고 따랐습니다. 그 선지자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권한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 받았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집중해야 하고, 하나님을 위한 최고의 통치자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를 위한 그의 희생적인 죽음과, 이에 수반된 부활은,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서의 거룩한 사명을 확증합니다.

그 분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나라의 복음전파에 빠져서는 절대 않됩니다. 신약성경의 죄사함이, 단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만을 믿는 것만으로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죄사함은 우선 천국복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지혜롭게 화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첫번째 명령은 천국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4-15).

. 이 책은 일반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구약성경의 배경을, 신약성경과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 예수님을 이스라엘과 세계의 메시아로 영접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 하시어, 새로운 정치체제, 신정정치체제로 회복된 이 땅의 왕으로서 통치 하신다는 감동적인 말씀선포에 촛점을 맞추어 기록하였습니다.

(7p)

다윗에게도 예언된 메시아의 나라인 예수님의 복음, 혹은 천국복음은 개인적으로는 당신에게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인생,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영생 ("죽은 후에 하늘에 간다"는 생각과는 매우 다른 개념)을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은, 새롭게 회복된 땅인 다가오는 천국의 관리에 참여 하는 것을 준비하기 위하여 당신의 여생을 받치기를 요구하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와 함께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공동 상속자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본래의 "신정통치제도"인 예수님의 역사는, 다가오는 메시아의 통치체제의 한 부분을 담당하기 위한 거룩한 훈련을 받도록 청함을 받은 예수님의 거룩한 가족들로서, 즉 신정통치국가의 일원들을 모집하시는 사역으로 계속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올바르게 통치운영 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이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8p) 공백

(9p)

소개말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이해하기 위한 신학적인 노력은, 때로 난해 합니다. 오랜 세월을 거쳐서 형성되어, 깊히 뿌리를 내린 고정관념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올바로 깨닫는 것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단순하게도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천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 소위 예수님의 메시아적 영성에 대한 오해는, 신학자들이 신약성경뿐만 아니라 성경전체에 기록된 메시아관에 대한 선입관을 버려야만 해결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을 편협적으로 조직한 사람들이 기록한 신학서적은 수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보수주의나 자유주의의 정통기독교는 메시아라는 명칭에 대하여 예수님과 1세기 사람들이 깨달은 신앙에 대한 연구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신학자들이, 예수님께서 열정적으로 가르치시고 실천하셨던 유대문화와 메시아관으로 새롭게 고쳐지지 않고는, 인간으로 오신 역사적인 예수님과, 그 분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 할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교회의 전통적 고정관념으로 신약성경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개혁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개혁의 희망적인 징조도 있습니다. 20세기 후반에 신약성경을 새로운 각도로 해석하여 신약성경의 핵심에 도달 할 수도 있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진리를 탐구하는 신학생들과 신학자들 사이에 점진적으로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전통적 기독교인들이, 그 동안 지켜오던 교리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기 시작 한 것입니다.

우선 신약성경을 중심으로 성경책 전체를 검토하면서, 우리에게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그 참된 의미를 깨닫는 것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검토하면서, 불쾌하다거나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씀을 무시하면 안됩니다. 성경학자들 사이에서, 자기들의 신앙에 부합 되는 것만을 수용하면서, 말씀의 의미를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하는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10p)

만일 성경학자들이 요한계시록을 1 주목하지 않으면, 종말에 대하여 강조하시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 할 것입니다. 만일 성경학자들이 자유주의적인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을 자기 들이 상상하는 분으로 만들 수는 있을 것입니다. 만일 성경학자들이 사회개혁자를 찾는 다면, 예수님을 자기들이 원하는 분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신학적인 접근방식의 문제점은 과거에도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당시의 신학자들은 구약과 유대인들의 전통적 종말론으로 증명될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거나, 신약적 교회들의 "비죤"을 비난하면서, 예수님의 메시아사상을 싫어하였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나 기독론에 대하여 교묘한 해석의 오류는 자행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히브리 배경으로 신약성경을 읽고, 말씀에 구속 되면, 우리는 명확하고 올바른 기독교신앙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방식의 성경연구 이든지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 테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다행이도, 테마의 이해에 대한 학문은 이름이 없습니다. 마태, 마가 그리고 누가가 기록한 책을 슬쩍 읽어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

1 I., e., 하나님께서 대리권자인 메시아를 통한 궁극적인 역사와 함께 – 하나님의 나라

(11p)

(12p) blank page

1 장

예수님과 메시아적 미래

(13p)

1 기독교신앙의 핵심 – 하나님의 나라

신학서적에는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사역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말씀의 표어이며 중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왔다" 라고 말씀 하시면서 능력을 행하시며, 사도들에게 상급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 나라를 위하여 기도 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에 앉아서 통치를 할 것이라고 확약 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 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눅 22:28-30; 행전 1:6; 3:21).

중대한 이 약속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열부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 하리라" (마 19:28)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약속하신 새로운 세상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도래 할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제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이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확실하게 정의할 수 있는 지식이 부족하여 자신감을 갖지 못합니다. 신학을 기록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 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도 애매하게 말합니다.

---

2 마가복음 1:14, 15: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3. 누가복음 12:32,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 하시느니라."

4. 마태복음 6:10,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5. 마태복음 25:31,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 예수님께서 말씀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인생에 대하여 확실하게 안다고 허풍을 떠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
> 많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복음서나 그 외에서 사용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종합적인 축복이고, 우리가 아직 경험 하지 못한 최고의 인생이라는 것 보다 더 명확하게 정의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말씀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구절들이 기독교 사회에서 드물게 회자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무언가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하기도 합니다. Tom Sine은 "다가오는 하나님의 승리는 예수님의 핵심적 사역이었다"라는 말씀 하십니다. 그리고, "Michael Green은 1974년에 Lausanne 국제총회에서 개최된 세계복음화 대회에서 말씀 하시기를 "이 모임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들으셨습니까? 많이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의 대화가 아닙니다.* 그 것은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시고 관심이었습니다,...8

Peter Wagner의 정직한 고백은 대단히 교훈적으로 우리들에게 충격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분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고백 하십니다! 저서인 *"교회 성장과 복음"*에서 George Eldon Ladd의 말씀을 인용 하시기를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은, 현대신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찬성합니다." Wagner께서 또 말씀 하시기를,

> 만일 이 것이 사실로서 내가 반론 하지 않는다면, 왜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별로 들어보지 못했다고 고함을 지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성경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충분히 읽어 보았습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52번을, 마가는 19번을, 누가는 44번을, 그리고 요한은 4번을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솔직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을 기억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설교집을 샅샅이 살펴 보건대, 나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설교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어디로 가셨습니까?"

---

6 Robert Morgan, in *Theology,* November 1979, p 458.

7 *The New Century bible, Commentary on James,* ed. E.M. Sidebottom, London: Nelson, 1967, p. 41

8 *겨자씨의 음모,* Waco, TX: Word Books, 1981, pp. 102-3, emphasis added.

(15 P)

선교사 Arthur Glasser께서 질문 하시기를:

>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를 언제 들어 보셨습니까? 솔직하게, 이 테마에 대한 확고한 설명을 들어 본 기억이 없습니다. 주님의 생각과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은, 광범위하게 알려져 있는데, 이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 들일 것입니까? 이러한 저의 경험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하여 제 동료들에게도 질문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 분들도 종종 예수님의 비유에 대하여 부분적인 설교만 들었다고 말씀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에 대하여 확고부동하게 설교하신 예수님을 생각 해 보면, 그 분들 역시 하나님 나라의 주제를 설교하는 목사가 드물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합니다. 10

이 학자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기독교의 기본적인 문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들과 성경을 중심으로 준비했다고 하는 일반적인 설교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 하지를 않습니다.* 그 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예수님 말씀의 핵심주제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놀랄만한 모순은 19세기 독일의 신학자인 Richard Rothe씨에 의해서 언급되었습니다. 그 분은 성경의 해설에 대하여 불쾌감을 언급 하셨는데,

>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열쇠로는 열리지 않습니다. 맞는 열쇠를 분실했는데, 맞는 열쇠를 찾기 전에는 성경해석은 제대로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의 구조는 학교의 교육과는 다릅니다. 열쇠가 없이 해석하려고 하면, 성경의 절반은 닫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다른 개념을 갖고 성경을 해석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의 전체의 의미를 열수 있는 잃어버린 열쇠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 열쇠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그 열쇠를 구부리면 효력이 상실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 하려면, 우리는 그 분께서 이해를 하셨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 해야만 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경적 유대인의 배경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분리하여 다른 의미로 해석하려고 한다면, 기독교의 핵심은 왜곡됩니다.

---

10 *전도학*, April 1989, p. 13.

11. G.N.H. Peters에 의해서 인용된, *신정주의 국가*, Kregel, 1952, p. 21, 재차 강조

(16 p)

반복되는 예수님의 설교와 가르침의 중심축인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지 않고서는, 우리는 복음의 메시지를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언급한 정직한 신학자들의 고백은, 예수님 말씀의 핵심적 테마가, 현재 기독교인이라 칭하는 교회들의 가르침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핵심테마가 송두리째 상실 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기독교의 신학이 기초서부터 개혁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개혁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음과 같이 해석해야만 가능합니다: 1) 예수님께서 말씀 하시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2)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성경의 배경 속에서, 메시아와 성도들에 의해서 통치되는 견고한 국가가 이 땅에 이룩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 하시는 구원사역으로 정의 되어야만 합니다. 이 역사는 예수님의 재림과 모든 세대의 믿음의 성도들의 부활과 함께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개혁은 burton Scott Easton 교수께서 *International Standard Bible Encyclopedia (1939)에* "구원"이라는 제목의 고찰을 통하여 촉발 될 수 있습니다.

>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분리 할 수 없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데, 그 것은 "심판이 가까왔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회개하라" (마가복음 1:14, 15)는 말씀의 의미는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은 기본적으로 미래적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한다는 의미이고,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이십니다.

---

12 영국의 the University of Aberdeen의 성경해석가이신 Dr. I. Howard Marshall 박사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라는 논문에서 말씀 하시기를 "지난 16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제로 설교를 들은 것은 단지 두 번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이 사실이 놀랍다기 보다는 말문이 막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테마라는 결론은 신약학을 전공하는 학자들이 보편적으로 일치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대의 설교자들이, 교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설교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많은 설교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 한 것은 이와 정반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를 대단히 드물게 들었습니다." (*The Expository Times,* Oct. 1977, p. 13)

(17p)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 하신 구원의 복음의 의미가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분명하지 않게 이해되어 있습니다. 역사속의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하여 외치신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분명하게, 그리고 생생하게,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설립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의 구원관에는 이 진리가 거의 없습니다. 현대의 일반적인 복음설교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죄를 사함 받는다고 국한 되어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께서 선포하신 복음이 빛을 잃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을 지킴으로 구원에 도달을 하라고 말씀하신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에 위협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테마가 빠져 있는 복음이 전파되는 현시대의 희안한 상황에 대하여 Roman Catholic의 신학자 B.T. Viviano께서 말씀하시기를,

> 신약학의 교수로서 처음부터 나사렛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테마는 가까이 다가온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조직신학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테마가 빠져 있다는 사실에 경악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지난 2천년 동안, 교회의 신학, 영성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시되어 있고, 가끔 알 수 없을 정도로 왜곡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18p)

2

선지자들의 소망이었던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탄생 이전에도, 예수님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누가복음 1:32, 33)

가브리엘 천사를 통한 이 말씀은 메시아의 사역으로서 전혀 생소한 것이 아닙니다. 천사를 통한 이 약속의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소망을 갖게 되었느냐는 질문의 답변은 간단합니다. 모든 선지자들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테마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고, 예루살렘이 수도로 회복되는 이상적인 세상나라를 땅 위에 이룩하신다. 땅 위에 완벽한 정치의 나라를 이룩하시겠다는 이 약속은,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의 전체입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다윗의 후손들이 새롭게 회복된 땅에서 나라는 다스리는 미래에 대한 비젼이 기록된 말씀들이 여러 군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세상나라는 하나님을 위하여 오직 한 분 이신 하나님의 대리권자 이신 메시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다윗의 장막에 왕위는 인자함으로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공평을 구하여 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이사야 16:5)

---

14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된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신학의 표준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종말론의 모형은,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약속의 땅으로의 귀환입니다." 이러한 예언을 어떻게 현대적으로 해석하느냐는 질문의 답변은, 먼저 말씀드린 것의 반복입니다. 첫째, 선지자들이 무엇을 의미 하는가? 이 질문의 답변은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말씀대로 실질적인 나라를 의미합니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민족과 가나안 땅, 그리고 민족들이 그 땅으로 귀환하는 미래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에는 의문점이 없습니다. 질문은, 이 예언이 이 시대에 얼마만큼 유효한 것인가 입니다." ("종말론, *"Hasting Dictionary of the Bible,*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11, vol. 1, p. 737, 강조문구). 심각한 질문은, 우리가 선지자들의 예언을 믿을 것인가. 선지자들의 예언은 분명한가. 문제는 교회들이 선지자들의 기록을 믿지 않는 다는 사실입니다. (행전 26:27, 바울사도께서 아그립바에게 하신 말씀, "아그립바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15 해석은 J.C. Allen, grand Rapids: Eerdmans, 1976의 New International Commentary의 구약주석을 기초하였습니다.

(19p)

하나님의 나라의 명백한 개념은 Good News Bible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어서 믿음과 사랑으로 사람들을 다스리고, 신속하게 의를 행 할 것이고, 정의를 구현할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본 것은 여호와(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중보자, 즉 약속하신 왕을 통하여 세상나라를 정복하시고 이 땅에 낙원을 이룩하시는 비젼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나. (이사야 24:23)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 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스가랴 9:10)

오바댜는 다가오는 메시아의 통치의 주권을 다음과 같이 말씀 하십니다.

"오직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신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초개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의 위에 붙어서 그를 사를 것인 즉 에서 족속이 남은 자가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 하셨음이니라. 남방 사람은 에서의 산을 얻을 것이며 평지 사람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걸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뭇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 곧 스바랏에 있는 자는 남방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자들이 시온 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 하리니 나라가 여호아께 속하리라." (오바댜 1:17-21)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을 수도로 한 새로운 통치권과 영역입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일치하는 예언입니다. 예레미아께서도 메시아의 통치 하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레미아 23:5-6)

(20p)

이사야와 미가는 메시아의 통치권에 의한 무장해제라는 약속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젼을 명백하게 말씀 하십니다.

>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9:6, 7; 2:3, 4; 미가서 4:2, 3)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가장 명백하게 기록된 것은 다니엘서 2:44입니다. 적국들의 패망과 함께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세상나라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다니엘서 7장에는 인자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호칭하신..)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통치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이 반복 됩니다. "그 [인자] 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 7:14, 27)

메시아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자로 취임하시는 혁명은 스가랴서에도 기록 되어 있습니다.

"그 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그날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스가랴 14:3, 9, 16)

(21p)

위에 열거한 성경들과 선지자들의 많은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신 메시아께서, 다니엘서의 표현인 "성민" (7:27)들과 함께 땅 위에 이룩되는 나라를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라는 사실이, 반박의 여지가 없이 증명 됩니다. 회복된 땅의 모습은 모든 선지자들에게 공통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소망을 기초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의 요약입니다.

사도바울께서 말씀 하시는 (행전 24:14, 15; 26:5-8) 기독교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소망은 주전 8세기의 위대한 선지자인 이사야에 의해서 생생하고 찬란하게 표현 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께서는, 기독교적 복음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의 이사야를 통해서 계시되었다는 사실을 확증 합니다. (로마서 1:1, 2; 16:25; 갈라디아서 3:8; 디도서 1:2). 구약말씀을 통해서 계시되는 복음을, 신약성경과 별도로 여기는 것이 엄청난 오해를 초래합니다. 사도바울께서 복음을 기록하실 때는, 독자들이 구약에 기록된 복음의 배경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전제 하십니다. 그럼에도 이 시대에는 거의 모든 성경의 독자들이, 필수적인 선지자들의 복음의 의미를 전제하지 않고 사도바울의 서신서를 해석하려고 합니다.

선지서의 몇 가지 중요한 말씀들은 다윗의 후손에 의하여 이스라엘 나라가 견고한 나라로 회복 된다는 것이 선지자들의 말씀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만일 다윗의 위가 메시아를 통치자로 하는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않는 다면, 모든 구약의 전체는 거짓이나 설화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이사야께서는 "복음을 전파한다"는 동사를 사용하십니다.

>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 같이 양 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 하시리로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 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사야 40:9-11, 52:6-10)

(22p)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복되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설교자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최초의 설교이신 누가복음 4:18, 19에, 이사야서 61:1, 2을 인용하시며 말씀 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 [궁극적 안식년]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는 적절하게 인용을 끝내시지만, 이사야는 미래의 최종적 성취까지 예언 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원의 날".

예수님의 말씀에 의거한 기독교는 다가오는 이 세상에 장엄한 비젼에 대한 확신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그저 작은 규모의 치유의 능력을 발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인간들이 암흑 같은 혼란에 빠졌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 (행전 3:21) 된 바와 같이 온 세상(만유)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희랍철학에 영향을 받은 교회들이, 영원하신 메시아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설립될 것이라는 위대한 예언에 대한 믿음이 서서히 약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쾌한 날이 이르는 약속이 희미하고, 신비적이고, 막연하고, 실체가 없는 "하늘"이라는 의미로 빛을 바래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이사야의 가르침을 근거한 소망의 붕괴는, 성경용어의 순수성을 배제한 교부들인 오레겐과 어거스틴의 해석의 기술 (표현이 너무 공손합니다!)로 기인되었다는 것으로 추적 될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모든 성경의 최종적인 테마인 하나님의 나라가 클라이막스적으로 계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 종말론의 말씀을 우화적으로 이해 하시고, 교회의 역사로 대입하십시오. [그래서 미래가 아닌 현재로 이해하십시오.] 천년을 사실적으로 추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탄생부터 최종적인 전쟁까지의 모든 교회들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통치는 교회가 세상을 통치한다는 예언입니다. [현재처럼!]. 부활은 예수님 안에서 영혼이 부활한다는 의미의 비유입니다. [현재처럼!] *이러한 주석은 정직하지 못한 유치한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첫 번째 부할" (계시록 20:6)이라는 말씀을 갖고 장난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경단어의 의미를 부인 한다고 해도, Alford라는 분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모든 언어는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말씀도 없어지면서 결국은 말씀이 의미하는 사건이 발생되어 남아 있게 될 것입니다."

---

16 Peak's 주석서, 941면, 강조첨언

(24p)

3

전통적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의 설명

선지자들의 동일한 소망으로부터 시작하여, 유대교의 랍비들은 성경말씀으로부터 메시아와 미래의 나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1. 메사아는 다윗의 집의 후손이다. 그리고 그 분의 직분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고 온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 하시는 것입니다.

2.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권세, 즉 단일화 된 적그리스도는 치열한 마지막 전쟁에서 패배하고 멸망 당 할 것입니다.

3. 적그리스도를 물리친 후에, 모든 나라들이 한 분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메시아를 영접하고, 율법의 질서에 따르게 되면서 메시아의 나라가 설립되면서, 이스라엘이 영적, 그리고 정치적으로 최고의 통치권을 행사하게 될 것 입니다.

이러한 신학의 근본은 히브어로 기록된 구약성경이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선지자들로부터 기인된 이 소망은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세상나라의 통치자라는 계시를 통하여 명확하게 확인됩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누가복음 1:32, 33)

누가는 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최종 직분은 최고의 통치자시라는 명학한 기독교의 신앙을 말씀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신 왕으로서 믿는 자들의 축복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온 세상나라를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사회적이고, 영적이며, 또한 정치적이기도 합니다. *이 땅 위에* 이룩되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은 신약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의 핵심적 신앙입니다. 누가도 바울의 전도여행의 동반자로서 데오빌로에게 본 핵심믿음을 가르치십니다. (누가복음 1:1-4)

(25p)

히브리 선지자들의 일치된 가르침을 근거하여,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실을 거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들의 반박은 다음과 같습니다. 메시아는 세상의 권세를 물리쳐야 하는데, 예수님은 로마제국의 권세를 물리치시거나, 팔레스타인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지도 않으셨으니, 예수님과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성경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자료를 갖고 있는 전통적 기독교도 다음과 같이 이해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메시아이신데, 팔레스타인의 로마제국의 권력을 물리치시지 않으셨고, 땅 위에 메시아의 나라도 건설하시지 않으셨으니, 유대인들이 소망하는 메사아의 사역은 잘 못 되었고, 메시아의 소망의 내용에서, 정치적인 혁명과 땅 위에 메시아의 나라가 설립되는 것은 제외 시켜야 한다.

상기의 논리화를 뒷받침 하기 위해서 신학자들은 자기들의 논리를 진전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유대인의 신앙과 예수님의 참된 의미를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거부 하였습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정치적인 야망에 대하여는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속되고 있는 예수님의 궁극적 목표는 전적으로 "영적"입니다. 오랫동안 지속되어 깊이 자리잡고 있는 개념은 다음과 같이 요약 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땅 위에 설립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실 기름부음을 받은 메시아를 보내 주시며, 그에 의한 구원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 메시아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악을 물리치시고, 의를 세우심으로 이스라엘의 영광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 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우선 성도들의 가슴속에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과 나라에 대한 개념들이 계속해서 전통화 되어 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생각되었던 것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 하셨다. 그러나, 그 나라는 세상나라의 통치와는 거리가 멀고,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윤리를 따르는 나라로 축소 해석되어야 한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좌정하신 하늘의 하나님의 뜻이다. 또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삶의 걱정이나 두려움을 떨쳐 버리게 하고 만물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 회개를 통하여 거룩해진 마음의 기도와, 더 좋은 삶의 대한 소망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와 축복은 하나님과의 교제이다.

황당하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기독교 서적에 기록되어 있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만족스럽게 수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중적인 견해는 예수님의 재림과, 이에 따른 땅 위에 설립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빠져 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대중화 된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는 중대한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하여 완전한 자체모순이고, 동시에, 히브리성경(구약)의 기록에 의한 메시아와 메시아의 직분을 거부 하는 것입니다!

(26p)

예수님께서 모든 선지자들이 마음으로 그리워했던 대로,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새로운 사회, 땅 위의 온 세상나라가 새롭게 되어서 신정국가가 이룩된 다는 사실을 부인하시면서 (내가 메시아라고 말씀 하시면서), 다른 한 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 하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히브리어(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고, 모든 기독교 진리의 원천이고, 최고의 권위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물리적이며 정치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것은 불가능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으로도 이 세상에 새로운 정치질서가 만들어지지 않는 다면, 주석가들은 두 가지의 대안을 선택하게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셨던지..., 그렇다면 제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호칭은 잘 못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씀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 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근본적으로 구약의 의미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의미로 사용 되었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정치적인 모든 사안들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

17 New Age Encyclopedia, London: Simpkin, Marshall, Hamilton, 1925, Vol. 6, pp. 176, 177.

4

세 번째 해법

주석가들의 변론들이 성경서적들의 증거를 정당화 하지 못 했습니다. 제시된 두 개의 경우에, 방대한 분량의 정보들이 이 사안에 적용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메시아라고 하지 않으셨을 것이다라는 추측은 신약의 전체를 허위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셔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열망하는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나라에 대한 소망을 묵살하는 것으로 하면 심각한 언쟁이 벌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증거는 신약성경에 충분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해법으로 넘어 갑니다. 당시의 상황에, 예수님께서 말씀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성경말씀처럼 땅 위에 새로운 정치질서의 나라가 설립되는 것을 의미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때로 말씀의 의미를 확장해석 하여서 거룩한 나라의 계획의 예비적이고 준비적인 단계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 하였습니다.

1. 메사아적 나라의 대한 예수님의 선포는 예수님께서 땅 위에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재림 하실 때에 이루어 지는 것을 미리 말씀 하시는 것이다.
2. 병고침과 귀신을 좇아내는 능력은 예수님과 선택된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나라의 능력의 현현이다.
3.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제자들을 모으신 것과 그들을 메시아 나라의 지도자로서의 훈련을 시키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룩되지 전에 그 나라의 참여를 선포 하셨다.
4. 메시아의 죽음은 세상의 죄를 인함이다.
5. 예수님의 승천과 하나님의 우편보좌의 기간 (시편 110:1에서 예고된 바와 같이)은 세상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회복되어 통치권자로서의 직분으로 취임 될 때 까지의 대기이다.

---

18 이 구절은 구약 보다 신약성경에 더 많이 인용되고 언급되었습니다. 이는 기독교 사도들의 깨닮음을 위하여 대단히 중요한 말씀 입니다.

(28p)

구약의 선지서에는 완전한 형태의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설립되는 것 같이 기록 되어 있는 것과는 다르게 신약성경에는 이러한 준비작업이 있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면, 구약에도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두 개의 단계를 거쳐서 설립이 되는 것으로 기록되었는데, 각 단계의 말씀 들이 흩어져서 기록 되어 있습니다. 전통적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생활의 목표처럼 되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는 없어져 버릴 정도로 그늘에 가리워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온 세상의 거룩한 능력의 통치자로서 취임하시는 미래의 위대한 사건입니다.* 19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유일무이 한 것으로서 미래의 위대한 사변과 함께 이 땅에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도래는 기도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20 하나님나라의 능력은 예수님의 사역에 확실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들은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잠깐 맛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 나라는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이고 예수님께서 왕으로 재림 하실 때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미래의 사건인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온 세상에 설립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능력의 현현, 이 두 개의 관점으로 신약성경을 읽으면,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들로부터 기인 된 유대인들의 신앙이며 국가적 소망인 하나님의 나라, 정치적이고 영토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어느 순간에도 박탈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

19 Cp. *The Century Bible, 데살로니가서 해설(London: Caxton Publishing Co., n.d.), pa 29*: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이다라는 것이 근자의 논쟁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 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천사들과 함께 영광의 재림을 하셔서 새로운 질서의 나라를 설립하시는 것이다." 인용은 Johannes Weiss' *Predist Jesu vom Reiche gottes (Jesus' Proclamation of the Kingdom,*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1, first pub. 1892). Weiss rightly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항상 미래의 실질적인 나라를 말씀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하시기를 "이 가르침은 현재에는 우리들이 감당하기 어렵다! 마태복음 6:10, "나라이 임하옵시고."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습니다*. (마가복음 15:43)

(29p)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초림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설립되는 정치적인 나라로 말씀하려고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성도들에 대한 가르치심은 미래에 도래할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준비입니다. 마지막 사역에, 로마제국과 유대교 권력에 의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맡기시면서 부활 하신 후에, 때와 기한은 말씀하시지 않으셨지만, 이스라엘과 온 세상의 통치권자로서 재림 하실 것을 약속 하셨습니다. 이 거룩한 사건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과 예수님의 메시아적 직분을 완전하게 성취하는 것입니다.

---

21 Cp. *The Century Bible, 데살로니가서 해설*, p. 30: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초림 때에 소망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소망하는 것이다.

(30p)

5

전통적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비정치적인 메시아

기독교인들의 전통적인 생각은 예수님의 정치적인 면을 수용하는 것을 이상할 정도로 꺼려 했습니다. 주석가들은 여러 가지를 이용하여서 예수님의 정치적인 면을 제외하여 해설 하려고 노력도 하였습니다. 이들의 현란한 기법 *(tour de force)*은 성경의 순수한 해석을 묵살 할 정도였습니다.

이들의 현란한 기법은 올바른 주석가들로 부터 거룩한 성경말씀을 난폭하게 폭행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lbert Schweitzer의 말씀은 인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많은 거룩한 말씀 [예수님]들이 뇌관이 제거 된 폭발물처럼 구석에 몰려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현대에 이르러 예수님으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당시에 말씀 하셨던 언어와는 다른 언어를 갖게 하고 있습니다. 22 예수님의 말씀이 소멸 당하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Schweitzer께서는 말세의 환란에 대한 예수님의 심정이 마음 속에 새겨져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들을 빛 가운데로 가져와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전혀 말이 되지 않은 의미로 해석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다른 주석가 David Baron께서는 실재적인 하나님나라를 제외하고 선지서를 해석하는 것에 대하여 비난하셨습니다. Baron씨께서는 스가랴 선지서의 주석에 대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이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많은 전통들을 적절하게 적용하여 말씀 하셨는데,

> 이선지서에 관한 거의 모든 주석들은 어떻게 이든 불완전 하기도 하고, 어떤 주석은잘 못 되었습니다. 오래 전의 어떤 주석들은 추천 할 만할 정도로 겸손한 영감과 실질적인 가르침이고, 어떤 주석들은 확고한 철학과 역사를 포함 하고 있지만 *땅 위에 세워지는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화적으로 해석하고,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회복과,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메시아의 재림과 통치를 제외 시킴*으로 성경의 의미를 손상 시켰습니다.

(31p)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고,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의 소망들을 인정하시는데 24, 메시아의 나라를 제거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본질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우화적 해석" (본 의미를 제거하기 위한 궤변적 표현)으로 성경말씀을 손상시킨 것은 스가랴서 뿐 만이 아닙니다. 거의 모든 신약성경의 주석들이 David Baron씨께서 지적하신 대로 결점 투성이 입니다. 선지자들에게 본질적이고 지배적으로 이해 된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주석가들이 인정하지 않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은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땅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견고한 의미는 구약의 주님의 날, 신약의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에 의해서 촉발 되어야만 합니다. 25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통상적인 의미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새로운 질서를 위한 통치자로 취임하시는 것을 의미 합니다. 이 것은 정확히 구약에서 말씀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입니다. (예, 나의 선택한 왕, 메시아). 26 전통적 신학이 하나님의 약속(로마서 15:8), 즉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세상의 후사"의 약속을 성취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진리를 상실 한 것 같습니다. 신약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을 기초로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시는 상급은 정치적인 관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열 고을 권세" (누가복음 19:17)

---

23 스라랴의 예언, London: Marshall, Morgar & Scott, 1962, pp. vii, ix, 강조첨언

24 마태복음 5:17,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15:8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25 참조: 데살로니가전서 5:2, 데살로니가후서 2:2, 고린도전서 1:8; 고린도후서 1:14,

주의 날은 예수님의 재림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26 다른 성경들도 참조하십시오, 이사야 52:7-10; 32:1, 시편 2; 스가랴 14:9이하; 계시록 11:15-18; 신편 96-101, "주께서 왕이 되시는 날" – 통치가 시작됩니다.

(32p)

소망은 예수님께서 의미하시는 그 의미에 의해서 촉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약속도 하셨고 (마태복음 5:5), 하나님께서 나라를 주신 다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32). *신약성경적 기독교의 약속도 예수님께서 재림 하실 때에 설립되는 새로운 나라에 통치권의 직분을 받는 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5:10)*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여 온 세상나라의 통치자의 직분을 갖지 못하는 메시아는 선지자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도 아니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마리아에게 알려준 메시아도 아님니다. (누가복음 1:32, 33).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환란 후에 땅 위에 설립되는 세상나라의 통치자에 관한 신학이 극소량이나 혹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전통신학이 과연 성경에서 말씀 하시는 메시아, 예수님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 전혀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33p)

6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미래의 정치적인 나라

예수님께서 하신 대단히 중요한 말씀들이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나라의 통치권자로 취임하시는 메시아의 궁극적 직분이 정치적인 본질이라는 의식을 표현합니다.

누구든지 약속된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무엘하 7장 (관주, 역대상 17장)의 기록처럼 다윗에게 주어진 약속의 근본적인 핵심과 상이 할 수가 없습니다. 27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을 통하여 이 땅에 평화를 이룩하시는 방법입니다. 28 온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심으로서 이스라엘의 다윗의 왕국이 궁극적으로 회복되는 영광이 히브리어 성경(구약)을 읽는 독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뿐만이 아니고, 팔레스타인의 사역을 마치는 날까지 "이스라엘의 위로"를 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의롭고 경건한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누가복음 2:25) 누가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칭찬한 여선지자 안나는 "예루살렘의 구속"을 기다렸습니다. (누가복음 2:38)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한 아리마데 요셉은 "선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누가복음 23:50, 51). 위의 사람들에 관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 입니다.

---

27 이 약속의 중요성은 시편 72, 89, 그리고 누가복음 1:32, 33을 참조 하십시오.

28 이 거룩한 말씀은 시편 2편과 10편에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쿰란공동체와 기독교인들은 사무엘하 7:14절을 약속의 성취로 적용하였습니다. (cp. 히브리서 1:5; 누가복음 1:32, 33).

(34p)

그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나라가 설립된 다고 믿지는 않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견이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믿었습니다. (마태복음 11:5)

마찬가지로, 십자가 위의 강도도 예수님이 다가오는 나라 속에 임재 하시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서,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 하였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취임하실 때에] (누가복음 23:42).

명백하게도 같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대한 동일한 열정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미의 자식 사랑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요청은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성경적 기독교 신앙이 표출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의미를 전혀 수정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마태복음 20:21)

그 여인이 그리는 나라는 "마음속의 나라"로 국한 되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미래의 나라의 요직에 앉을 수 있는 영광은 예정되어 있다고 답변을 하십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마가복음 10:40). 게다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과 같이 먼저 남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42-45; cp. 빌립보서 2:5-8).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가오는 나라의 본질성과 나라의 상태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다가오는 나라의 직책에 대한 오해에도 꾸중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배워야 하는 것은 고난, 섬김, 그리고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 푯대는 오직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신약의 핵심은 약속된 메시아의 나라라는 진리를 배웠습니다. 제자들의 가장 중요한 기독교 신앙생활은 하나님 나라에서 메시아를 보조하는 직책입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 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누가복음 22:29, 30) 만찬 직전에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고 말씀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16, 18).

(35p)

그리고,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행정관들로서 예수님과 다시 연합하여 함께 먹고 마실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사건은 "새로운 세대"에 [문자적으로,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28).

제자들은 언제 이런 일이 성취되는 지에 대한 의문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 하시기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마태복음 25:31).

포함된 모든 의미를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명백합니다. 새로운 세대가 시작함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재림 하셔서 통치자로 취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것입니다. 12지파가 다시 모이는 땅 위에 왕권과 통치권이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세대에는 예수님과의 교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 교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 하기 전에는 새롭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2:18).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정리가 되는 동안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무엇을 더 얼만큼 하는 것입니까?

(36p)

7

귀인의 이별과 복귀

다른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귀인이 떠났다가 아버지의 나라의 왕권을 받아 가지고 돌아 오는 것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쉽게 미래의 거룩한 계획의 단계를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나라의 수도라는 것을 제자들은 알 수 있었는데, 당시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여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의 다수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 했습니다." (누가복음 19:11).

누가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논의에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의심의 여지가 없게 하고, 그리고 왕이 수도에 가깝다는 지리적인 조건이 선지자들의 소망과 마침내 나라가 회복된다는 데에 대하여 감격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귀인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당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에는 나타날 것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출현은 적그리스도의 멸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왕 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9:27)

예수님께서는 한 순간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오해하고 있다고 정정을 하시지도 않으셨고,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 속"예 있는 것이라고 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단편적인 귀인의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아버지로부터 왕권을 부여 받으시고 재림하실 때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지 않는 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예수님의 통치권을 거부하는 적들을 처형하심으로 왕권의 행사를 말씀 하십니다. (누가복음 19:27). 동시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동안에 생산적인 일을 수행한 예수님의 충성된 종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상급으로 주십니다. (누가복음 19:17).

(37p)

이 비유의 말씀으로 시편 2장에 주의 기름부음 받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완벽하게 확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메시아에게 "나라를 유업으로 주십니다. (V. 8). 왕은 "철장으로 그 것들을 깨뜨리고 질그릇 같이 부시어 버릴것입니다. (v. 9) 같은 시편에는 메시아를 대적하던 세상의 군왕들이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고,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라." (v 12). 유대인들도 예수님께서도 시편 2편은 메시아께서 능력을 갖고 재림하셔서 세상 나라를 정복하고 통치할 것이라는 계획의 계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2:5).

사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의 직책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께 주어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2:26). 29

---

29 시편 2장에서 예수님까지를 요한계시록 11:15; 12:5; 12:10; 19:15; 행전 4:25, 26; 13:33를 참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출현시키는 것에 대하여는 (cp. 마태복음 1:20, "독생"; 누가복음 1:35, 33절과 비교하십시오. 부활에 대한 말씀은 행전 13:33 하나님의 아들이 어미의 태에 잉태하는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8

예수님, 유대기독교인의 메시아

우리가 검토한 자료들에 의하면 전적으로 정치적인 면을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초림 때에는 권력을 휘두르시지도 않으시고, 자신과 제자들까지도 당시의 정치적인 것으로부터 멀리 하셨습니다. 30 예수님은 아버지의 성품(형상)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온유와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추후에 통치권자가 되 실 분이 고통을 겪는 종의 모습을 보여 주시는 대조적인 것은 예수님의 놀라운 성품을 보여 주셨습니다. 1 세기에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마태복음 12:19, 20). 다음에는 세속적인 것을 심판하셔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요한계시록 19:15). 메시아의 양면적인 사역이 나타나지 않는 해석은 형편없이 왜곡 된 것입니다. 역사적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나, 예수님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도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된 진리의 전체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전통적인 기독교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정치적인 요소들을, 예수님과 제자들의 통치권에 대한 말씀들을 무시 해 버리거나, 아니면 성경에 밝히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통치권을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자기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그 통치권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거의 모두 삭제해 버렸습니다. 사도들에게 교회를 통하여 통치권이 부여되었다는 이론은 신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영광의 재림을 하시는 새로운 세대라는 말씀과 (마태복음 19:28; 25:31), 메시아께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통치하신다는 말씀과 충돌을 합니다.

---

30 예수님의 사역은 처음부터 전적으로 정치적이라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사탄의 초능력과 전쟁을 하시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것을 "우주적 정치"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적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과 사탄의 전쟁에 대하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투쟁은 예수님의 궁극적인 승리가 확신되었을 지라도 풀리지 않은 세상의 지배권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마귀의 손아귀에서 반역적인 이 땅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강퍅함과 무지로 인하여 사탄은 아직도 "이 세상의 신"입니다. (고린도후서 4:4; 요한일서 5:19; 요한계시록 12:9)

귀인의 비유에서, 귀인은 그의 대적들을 처형하고 그의 나라를 통치하기 전에 먼저 *하늘에서* 재림을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는 제자들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데, "나라이 임하옵시고", 그리고 그 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함께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누가복음 22:18) 입니다.

널리 알려져 있는 대로, 통치권에 대한 약속이 *재림이전의* 시대로 적용하는 것은 성경적 섭리를 치명적으로 혼란 시키는 것이고, 미래를 전체적으로 성경에서 벗어나게 하는 비극적 효과를 끼치고, 예수님의 재림 하실 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장막으로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요한계시록의 기록대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인 요한과의 대화에도 밝히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날**이 될 때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간곡하게 부탁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요한계시록 2:25-27; 3:21)

이 말씀은 구원주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기를," 요한계시록 2:18) 그리고, 교회들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라는 말씀으로 권유를 받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상기의 말씀으로 가르치심에도 불구하고 성경적 미래를 알지 못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통적 기독교는 상기의 가르침을 통해서 아무 것도 배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인용한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새롭게 된 이스라엘과 세상에서 함께 통치하는 궁극적 목표로 가르치신 것의 재확인 입니다. 31 이러한 순수한 메시아의 소망에도 불구하고, 주석가들은 시편 2편에 기록되었고 요한계시록의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비기독교"라는 딱지를 붙이고 이와는 상반되는 메시아관을 주장했습니다.

---

31 마태복음 19:28; 누가복음 22:28-30; 요한계시록 2:26;3:21; 5:10; 20:1-6

(40p)

그들은 시편 2편에 기록된 왕의 통치가 예수님과 동일하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시편 2편의 왕이 자신이라고 인용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 시편 2편이 예수님이라고 할 수가 없다, 부분적인 이유는 거룩한 산 시온에 왕이 세워지는 것은 그의 경우와 관계가 없다; 다른 부분적인 이유는 적을 공격하는 예수님이라는 생각은 비기독교적이다. 32

이런 관점의 신학자들은 비참한 모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 했다고 말하면서, 그들이 성경적인 메시아관의 중요한 부분을 제외 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제한선을 그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편 2편에 대한 신학자들에 대한 불안함을 말씀 하시지 않으시는데, 왜냐하면, 요한에게 계시하신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교회들에게 "나라들을 다스리는 권세"의 궁극적 메시아에 대한 신앙을 명령하십니다. 왕권의 약속은 마태복음 19:28과 누가복음 22:28-30 (전에 참조한 바와 같이)과 같이 요한계시록 2:26, 3:21; 5:10과 20:1-6에 의해서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21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아버지의 왕권에 의한 현재의 사역과 미래의 통치권인 메시아의 나라에서의 다윗적 왕권의 다름을 조심스럽게 설명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하여 가르치신 것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신 구약을 기초한 우리들이 고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설교를 통한 메시아관을 인정하고 영접하는 것은 새로운 빛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의 사건" (종말론)은 미래의 모든 문제점들을 없애버리려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주석가들의 교묘함에 의해서 대단히 혼돈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33

---

32. Dictionary of Christ and the Gospels,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Vol. 2, p. 452.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적대적인 이 세상에 대한 진노의 대리권자로 사역 하십니다. 그 동안, 기독교인들은 원수들과 비폭력적으로 대하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5:39, 40)

(41p)

미래에 대한 혼돈은 새로운 세대에 예수님께서 재림의 의해서 설립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예 하려는 인류의 노력을 그리는 종말론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왜곡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의 기록에 의하여 얻은 세상에 대한 거룩한 계획에 대한 소망이 신약 때까지 흐리지 않는 다면, 신학은 "우리의 현대과학"과 전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터무니 없는 비판적인 것들로 예수님의 말씀을 제거 하려고 하기 보다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만 할 것입니다.

---

33 Ramm께서 "선지서와 종말론으로부터 복음적 기독교인들의 절망적인 분리"에서 언급 (Protestant Biblical Interpretation, Baker, 1970, p. 244).

(42p)

9

전통적 기독교의 막연한 미래의 나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미래는 항상 명확하였고 현재는 예수님께서 재림 하시는 마지막 날에 대한 준비적인 의미를 말씀 하셨습니다. 이러한 구조로 조직되지 않은 그 어떤 신학은 성경의 기초를 상실한 신학입니다.

신학의 학문은 예수님께서 말씀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이고,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 것을 선언하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막연한 자세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록인 복음서를 막연하게 만들고, 기독교의 설교와 전도를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신약성경이 미래의 나라에 대하여 침묵하고 계시지를 않습니다. 만일 신약성경에 교회가 예수님의 통치권의 일부를 담당하는 미래의 메시아에 의한 신정정치에 대한 사항이 드물게 기록되어 있다면, 가정컨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학은 구약성경을 통하여서 조직 되었을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한 더 많은 말씀들이 있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하였습니다. 선지자들은 미래의 나라와 예수님께서 영광으로 재림 하셔서 통치하시는 소망의 성취를 예언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사도행전 1:6)은 예수님께서 한번도 부정하시지 않으신 기독교 신앙의 유산으로서 많은 말씀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에, 사도들이 12지파를 다스린다는 예수님의 약속은 특별하게 언급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9:28). 이런 의미의 말씀은 신약성경에서 부터 시작 한 것이 아닙니다. 시편에는 "다윗의 후손에 의한 통치권"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평화스럽게 살아가는 미래의 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22:5). 이사야께서는 예루살렘의 완전한 회복을 말씀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처음과 같이" (이사야 1:26), 한 왕이 공의로 통치 하시고, (이사야 32:1). 신약성경의 요한계시록에는 메시아의 관한 모든 말씀들과 재림에 관한 말씀들을 종합하여 신중하고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3P)

.이 것이 바로 기독교의 종말론 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의 저자 이신데 어떻게 다르게 설명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1). 기독교인이 아닌 "유대인"으로서 **종말론**을 말 한다면, 근본적으로 혼란입니다. 기독교는 그 자체가 전적으로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전통적 신학을 뿌리로 가르치시는 유대인이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 기록된 많은 말씀들을 말씀 하십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교회들에게 구약의 메시아사상을 진심으로 권면 하십니다. 부활 하신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저자라는 것을 부인하려는 끔찍한 방편이나, 복음서의 방대한 종말론을 삭제 해 버리려고 하는 의도 외에는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구원주의 참 모습을 말씀 하시는 예수님을 인간이 만들어 내려고 하는 집착은 신학의 비극입니다. 기독교의 방대한 분량의 기록들을 단순히 무시 하거나 없애 버리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신학을 근본적으로 재 정립하는 것이 시작되어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결론이 지어져야만 합니다.

(44p)

10

미래의 나라를 제거하는 신학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부당하게 해석한 증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주석가들 예수님께서 누차 말씀하셨던 종말론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을 제거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도매금으로 없애버리려는 시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들을 각주에만 기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제는 더 넓고 크게 표시가 되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Leon Morris는 C. H. Dodd의 "현실화된 종말론"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도래 했기 때문에 미래로 생각하면 않된다는 이 이론은 "많은 사람들의 "불만"을 불러 일으킴니다. "불만!" 이것은 신약뿐 만이 아니고 성경말씀 전체에서 부여하시는 소망을 없애 버리는 것입니다. Leon Morris께서는 Dodd 교수의 이론에 대하여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말이 미래에서 현재로 옮겨졌구만. 천체적 소망이 현실화된 경험으로 바뀌어 졌구만" 34

Dodd 교수의 이론에 의하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신학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성경독자는 신약성경을 연구하는 학자가 이런 결론을 도출 했다는 데에 대하여 소름이 끼칠 정도로 경악을 할 것입니다. Morris는 또 말하기를 현실화된 종말론이 "많은 현대 신학자들에게 결정적으로 거부 당하고 있다." 그는 J. E. Fison이 "현실화된 종말론은 신약성경에 대한 많은 증거들에 의하여 딱 잘라 말해서 이단이다."라고 말 한 것을 인용합니다. Emil Brunner 또한 말 하기를,

> 미래에 관한 것들은 버려야 할 신화의 한 부분 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어떤 형태가 되었던 모든 사건들은 발생 할 것이다.

---

34 New International Commentary의 데살로니가 전. 후서, Grand Rapids: Eermans, 1959, p. 147

(45p)

> 이 사실에 주저하는 것은 신앙의 근본에 주저하는 것이고, 조직된 기초를 파괴하는 것이고, 신앙은 산산조각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파루시아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기독교 신앙은 부도수표이고, 허위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파루시아 [재림]이 없는 기독교 신앙은 끝 부분이 없이 허공으로 도달되는 사다리와 같습니다.

훌륭한 말씀들이고 너무도 당연한 진리입니다. 수많은 숫자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땅 의의 실질적인 나라의 통치자로 재림 하신다는 신앙을 붙잡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재림이 복음서의 중심이고 핵심인데도 말입니다! 하나님나라가 명백하게 표현되지 않는 것은 진실된 기독교가 아닙니다.

미래의 사건들에 대한 J. E. Fison과 Emil Brunner의 주장은 열광적으로 수용되어야만 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나라를 희미하게 말씀 하시는 것은 불만스럽습니다. "어떤 형태가 되어든지"..... 신약성경과 신약성경의 뿌리인 구약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복되는 신정국가는 선지자들에 의해서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구약성경에서 나라에 대한 말씀으로 하시는 **주님의 날**에 대한 충분한 증거의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능력과 영광으로 재림 하신다는 의미와 동일한 것입니다. **주님의 날**을 전.후에 세상에 발생 할 사건들의 자료의 많은 분량이 구약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 말씀들은 다음 장에 발생 할 사건들을 기다리게 합니다.

이제 까지의 말씀의 요약으로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성경의 상황 하에서 이해 될 수 있는 "메시아"관을 갖지 않고 약속의 메시아를 논하는 것은 앞 뒤가 맞지 않습니다. 신약성경에 예수님께서 구약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의 사역의 어느 부분도 부정하신 근거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 때에는* 세상의 통치권자로서의 메시아의 직분을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보좌의 왕으로서 세상을 통치하실 메시아가 아니시라는 것은 엄청난 오해입니다.

---

35 Ibid. 유명한 신약성경 학자가 표현한 "신약신앙의 기초를 부수어 뜨린다" 라는 경종은 교육적입니다. 이 말씀은 "신학자"이라도 참고 해야 할 것입니다.

(46p)

예수님께서는 초림에서 제자들을 모으셔서, 다가오는 나라의 대하여 준비를 시키신 후에, 적대적인 유대인들과 로마관원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 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을 극복하시 것의 보증이 되셨고, 메시아직 사역과 땅의 평화에 대한 선지자들의 비죤을 완성하여 현실화 하시기 위하여 재림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지 사흘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반박 할 수 없는 많은 증거들 (행전 1:3)에 의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증명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도 증의 한 사람과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께서 말씀 하시기를,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사도행전 10:41).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내 손과 발을 보고..누가복음 24:39) 영생하는 인간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촉각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보여 주셨습니다. "(나를 만져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누가복음 24:39). 6주의 기간동안, 영생하는 인간으로, 새롭게 창조된 첫 열매로서, 죽음이 있는 인간들과 교제도 하시면서, 다가오는 나라에서 경험할 찬란한 현상들의 예고편으로 보여 주셨습니다. 40일 후에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떠나셨습니다. (사도행전 1:9-11)

메시아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다가오는 세대에 초청되어 메시아의 영광을 함께 나눌 교회들을 통치 하십니다. 이렇게 간단한 성경적 계획을 인정하지 않는 잘못된 "신학"은 메시아적 (직접 메시아께 갖는 마음) 사역에 반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어 주신 것 뿐만이 아니고, 재림하셔서 땅 위에 설립되는 신정국가의 통치자가 되시는 메시아라는 성경말씀의 핵심을 상실 한 것입니다. 올바른 교회의 근본적인 임무는 이 찬란한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 2 부

교회에서 사라진 성경적 메시아관

(48p)

1

메시아를 통한 구원

구약과 신악성경은 전적으로 메시에 관한 말씀입니다. John Bright께서 말씀 하시기를 **메시아의 나라는** 일관된 성경의 테마입니다.

>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성경의 전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나타날 뿐만이 아니라, 어떤 형태의 계시가 되었던지, 하나의 드라마가 양쪽에서 연출 되는 것처럼 구약과 신약성경의 길이와 폭의 전체를 통하여 발견 됩니다. 1쪽은 다른 한쪽인 2쪽의 결론을 계시합니다. 이 것이 결여되면 드라마는 미완성이고 불완전합니다. 2쪽은 1쪽을 생각하면서 읽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된 내용을 상실합니다. 왜냐하면 드라마는 근본적으로 하나 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책은 한권 입니다. 이 한 권의 책에 제목을 정한다면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36

히브리어로 메시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라고 번역되는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필수적으로 기억 해야 합니다. "기독교"라는 단어는 "메시아교" 입니다. 성경적 의미의 기독교인은 메시아를 따르는 메시아인입니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이렇게 말 할 수 있는 올바른 신약학자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 작은 교파를 제외 하고, 현대의 메시아 사상은 죽었다. 실제 아무도 이러한 사항들에 있어서 이 우주에 대한 깊은 신념이나 소망을 표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이 세상의 모든 문제점들을 영적으로, 또한 정치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능력의 메시아를 심각한 마음으로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세상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메시아의 재림이 핵심입니다. 38 신약성경적 기독교인을 위하여,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메시아적 직분의 전체가 아닙니다.

---

36 하나님의 나라, new York: Abingdon Press, 1953, pp. 7, 197.

37 J. A. T. Robinson, *The Human face of God,* SCM Press, 1973, p. 9.

38 Our quotation may well prompt the question as to how far some scholarship is in sympathy with the New Testament.

(49p)

이 세상은 "세상의 신" (고린도후서 4:4)이라고 표현되는 사탄의 지배와 미혹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시무시한 상황은 이 세대의 마지막에 메시아께서 재림 하심으로 인해서 해결 됩니다. 이 진리가 바로 선지자와 사도들과, 또한 예수님까지도 기다리고 있는 참된 기독교관입니다.

그러나 만일 현재에 작은 교파를 제외 하고는 현실의 모든 문제점들을 해결 하시는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는다면, 성경적 기독교인의 참된 소망은 그 어떤 다른 것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공감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전혀 놀랍지가 않게 됩니다. 만일 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데, 메시아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께서 모르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고, 예수님도 그들에게는 모르는 분이 됩니다.

신약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메시아이신 것을 기독교의 핵심신앙으로 말씀 하십니다. 신약성경에서 예수님께 주어진 모든 직함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계시의 말씀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구원, 그리고 제사장적 직분과 왕의 직분은 메시아 직분의 3가지 요소들입니다. 게다가, 메시아라는 계시는 오직 한 분에게만 주어진 명칭입니다. 오직 진짜의 한 분에게만 주어진 이름인데, 성경적 기독교의 목적은 예수님 홀로 한 분만이 메시아라는 진리를 계시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진짜 메시아라는 사실을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 할 것인가를 묻는 다면, 답변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성경에서 계시하는 메시아의 모형에 정확하게 부합되십니다. 신약성경은 예수님께서 구약성경에 기록된 메시아가 성취하여야 하는 거룩한 사역들을 성취하시고 계신다고 말씀 하십니다. 그러나 메시아께서 세상의 통치자로서, 땅에 새로운 나라의 권세를 회복 하실 때까지는 이야기는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은 한절 한절마다 메사아의 미래에 대하여 계시하고 계십니다. 모든 말씀은 세상의 권세가 사탄의 손에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엄청난 사건으로 유도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에 바울과 베드로의 사역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왕이 예수님 이시고 세상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 뿐만이 아니고, 메시아의 부활과,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 현재의 사역은 땅 위에 재림하셔서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노력이시라고 분명하게 말씀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윗의 보좌의 통치자 이시라면 왜 이 땅을 떠나셨는가? 베드로는 답변 하시기를,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 두리라." (사도행전 3:20, 21).

(50p)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 될 때까지는 메시아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베드로에게 분명 한 사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20). "만물이 회복 될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 두리라", 베드로의 관점은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하신 약속을 기준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마태복음 19:28).

신약성경을 기초한 계획은 잘 알려져 있고 주목되는, 또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대화의 주제인 시편 110 입니다.

>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마태복음 22:41-45)

답변은 당연히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고, 그이 아들이고, 동시에 역설적으로 그의 주님이십니다. 정곡을 찌르는 예수님의 질문은 다윗은 예수님께서 탄생 하시기 전에 이미 주님이신 메시아를 영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임을 알았고, 예수님께서 능력과 함께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메시아로 인정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

39 다윗으로부터의 예수님의 계보는 마태복음의 솔로몬에 이르기 까지, (마태복음 1:6). 그리고, 누가복음의 나단까지 (누가복음 3:31) 추적이 됩니다. 왕권은 솔로몬에 시작하여 여호와긴 (예레미아 22:24-30)에 끝납니다. 그리고, 네리의 아들인 스알디엘이 나단에 이르기까지의 다윗의 후손으로서의 새로운 후사로 발견됩니다. (마태복음 1:12, 누가복음 3:27). 요셉과 마리아의 모든 개연성은 다윗에서 나단까지의 후손들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첫 번째 사촌인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Smith's Concise Dictionary of the Bible (1865)의 "예수님의 계보"를 참조 하십시오.

(51p)

메시아 사역의 진전은 신약성경에서 약 25번이나 인용되거나 언급된 시편 110:1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구약의 메시아의 미래적 계시이고, 믿음의 조직을 고취시키는 데에 없어서는 않되는 말씀입니다. 짧은 구절에 거룩한 계획이 계시되었습니다. 한 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주님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40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다음을 계시하여 주십시오.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 두리라." (사도행전 3:21).

메시아의 원수가 발 앞에 무릎을 꿇는 사건의 예견은 시편에 기록된 메시아의 또 다른 계시의 말씀입니다.

>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림이여 질그릇 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시편 2:6, 8, 9)

이야기는 분명하고 명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재림 시에 성취 될 메시아의 감격스러운 역사를 기다리는 신약성경적 교회에 없어서는 않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본 바와 같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통치권에 대한 약속을 하시면서 마지막 때까지 믿음을 지킬 것을 종용 하셨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요한계시록 2:26).

---

40 예수님께서 "주", 예를 들어 "메시아 주님"이라고 선언하신 것에 대한 이해를 기초합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으로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의 신약성경의 기독론을 조직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도적 고백은 "유대인"이라고 흐려져서도 않되고,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 할 때의 "발전"된 믿음으로도 교체되어서는 않됩니다. 요한도 베드로처럼 마음 속에 단일한 신앙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31). 성경이 등한시 되면서, 이러한 중요한 사실들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예수님답지 못하게, 인간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적 기독론은 반셈족적 경향이 있습니다. 신약성경의 메시아관을 상실하여 메시아의 나라를 혼돈하는 결과가 초래 되었습니다.

(52p)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새로운 언약으로서 통치권의 직분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반복 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도 말씀 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누가복음 22:29, 30).

그 후에, 요한계시록에서 동일한 약속을 교회들에게 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요한계시록 3:21).

메시아께서 재림하셔서 통치하시는 승리의 약속의 관점에서 볼 때, 6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의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감격의 표현을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사십 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 하니." (사도행전 1:3, 6).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아라는 것을 믿으면서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는 당연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라의 회복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고쳐 주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언제* 대사건이 발생 할 지에 대하여는 계시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사도행전 1:7).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이미 그 때와 기한은 모르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32). 성령의 충만으로 주어지는 능력이 발휘되는 것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5), 그러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사도행전 1:6, 7). 그렇기 때문에 이 것은 두 개의 다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순절에는 시작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사도들의 질문의 자세는 3년 반 동안,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후의 40일 동안의 가르침 (누가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애 관한 것"을 배웠다 사도행전 1:3)으로 마음속에 스며들어 있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의 증거입니다.

(53p)

사도행전 1:6에 관한 주석에 성경적 메시아의 기독교와 고전적 비메시아의 사상의 충돌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 주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의 견해는 잘 못 된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질문은 땅 위에 신정국가가 설립 될 것이라는 궁극적 사건을 믿고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주석서가 바르게 기록되었듯이, "유대인들의 선지자적 그리고 종말론적 최고의 소망의 요지"인 영적 혁신의 의미입니다. 41 그러하니, 기독교인들에게 같은 신앙이 있어야만 합니다.

본 주석서에는 나아가서 기록 하기를, 나라의 회복에 대한 사도들의 소망은 "옛적의 유대인들의 언어로 기록된 **메시아의 소망**"입니다. 놀랍지 않습니다. 그들이 유대인의 언어로 **메시아의 소망**을 기록한 이유는 그 것이 바로 그들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구약적 메시아관을 부정하려고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메시아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것이고, 능력을 발휘하시는 것이고, 사도들에게 높은 수준의 영적 성품을 고취시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 하였을 때에 함께 통치 할 수 있는 자격의 사람으로 만들어 지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메사아적 나라"의 사상도 참예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을 요구되고, 모든 선지자들의 소망과 다르지 않고, 예수님께서 진심으로 말씀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의 회복에 대한 사도들의 소망을 단지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무시하는 것은 오해를 조장하게 됩니다. 엄격히 말하면, 사실 이것은 기독교인과 사도적이라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 되었습니다.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로마서 15:8).

참담하게도, 거의 모든 주석가들이 성경적 기독교라고 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구절인 사도행전 1:6에서 걸려 넘어집니다. 예수님의 핵심적 사역(누가복음 4:43 등)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꺼려 하면서 사도들이 유대인적 메시아 용어로 표현되는 나라에 대한 생각이 잘 못 되었다고 여깁니다. 42

---

41 The Clarendon Bible, 사도들의 행동, Oxford: Clarendon Press, 1923, p. 132.

42 성경적 기독교를 반대하는 충격적인 예는 칼빈의 주석서에서도 발견 됩니다. "사도들의 잘못된 질문은 말 한 것보다 더 많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복음인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칼빈의 반감입니다.

(54p)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도 (예수님께서 나라에 대하여 많은 가르침을 주심으로 스며든 사상)들이 나라에 대하여 유대인들과 같은 사상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하여 공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나라에 대한 유대인들의 사상은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구약의 사상이라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나라는 인간의 마음속에 새로운 각도의 영적 각성이 없는 단순한 정치적인 사건은 아닙니다. 나라의 영이 예수님의 사역에 현현되지 않았다는 논쟁도 아니고, 사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영적인 변화는 지금 이 순간에 발생되어야만 합니다. 기독교인들의 노력과 인내에 대한 자극적인 것은 미래의 메시아의 나라의 참여를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이 것으로 신약성경 전체의 구도가 조직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많은 주석가들과는 다르게 메시아께서 왕으로 등극하시는, 땅에 설립되는 새로운 정치적 질서의 나라에 대하여 "미숙아" 라든지 "유대인"이라든지의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것이 바로 인간에게 계시된 가장 고귀한 사상이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의 목적입니다.

주석가들이 나라의 회복에 대한 자기들의 관점으로 사도들에 대한 계속적인 비방은 유대인 메사아관의 사상을 갖고 계신 예수님에 대한 전통적 기독교의 적대 행위를 들어냅니다. 문제는 심각하여 신약성경의 핵심적 소망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영향을 끼칩니다. 신약성경에 대하여 전적으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합니다. 주석가들이 사도행전 1:6의 질문을 한 사도들에게 대한 비방적 자세를 멈추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생명인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살아있는 소망을 나 눌 때에 비로서 성경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55p)

2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신약성경의 구조는 유대인과 메시아관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명백하게 정의된 사상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적 기독인들에게 공통적입니다. 이 사상에 의하면 현세의 만물은 전적으로 악합니다. 인류는 우주적 악의 손아귀에 있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의 메시아이신 아들을 보내셔서 사탄과 마귀를 멸절 하셔야만 인류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개별적으로 지금이라도 사탄의 폭정으로부터 해방 될 수 있는데, "온 세상은 온 천하를 꾀는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요한일서 5:19), 요한계시록 12:9).

바울사도의 말씀처럼 메시아께서 영광으로 오시기 전까지의 세대는 "악한 세대" (갈라디아서 1:4),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4).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고, 그 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립니다. (로마서 8:22, 23). 기독교인은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이 나락 도래하기 전에 구원을 맛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에도 기독인은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질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13). 기독교인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현재에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요한복음 3:3, 5; 야고보서 1:18, 2; 골로새서 6:18). 그렇지만 이러한 믿음이 메시아의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도래했다는 오류를 범해서는 않됩니다. 메시아께서 구름을 타고 오셔서 세상의 권세를 붙잡을 때까지는 아직 아닙니다. 43 그 영광의 날까지 기독교인은 "나라이 임하옵시고"의 기도를 쉬지 말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이 세대의 마직막에 대환란으로 인하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알아 차릴 때가 바로 그 때입니다. (누가복음 21:31).

---

43 바울의 서신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은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24). 기독교인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 받았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56p)

사도들도 예수님과 같이 현세대는 사탄의 권세에 굴복 당해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새로운 세대의 도래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이 시종일관 말씀 하시는 시기적인 사항의 구도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새로운 세대의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는 자는 핍박과 고난을 겪어야만 하지만, 믿음을 지키는 자는 세상이 새롭게 될 때 영생을 상으로 받는다는 진리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사탄의 저주로부터 구원을 얻을 뿐만이 아니고, 끝까지 고난을 극복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는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새로운 사회로 형성되는 메시아의 나라에 참여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 받게 되는 것입니다. 순교를 당할 수도 있는 고난을 극복하며 믿음을 지켜야 미래에 최고의 상급을 받는 다는 믿음의 푯대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믿음의 목적은 "영생"이라는 말씀은 신약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영생이라는 단어는 신약성경 원문이 그리스어 사전에 "오는 세대에서의 생명"이라고 표시되어 잇다는 것은 거의 모든 신학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결국 영생은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입니다. "영생"은 성경원문 그리스어로 "조에 아이온" 이고, "조에"는 존재이고 "아이온"은 세상입니다. 예전의 해석은 성경적 기독교의 근본인 "이 세대"와 "오는 세대"의 비교에 유대인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45 서로 다른 이 두 세대와 "오는 세대의 생명인" "영생은 기독교인들에 익숙하고, 전체의 신약성경의 뿌리가 됩니다.

---

44 C. K. Barrett의 성요한의 복음 (London, SPCK, 1972)를 참조하십시오. 그 책에서, 랍비는 "영생의 의미" (다니엘서 12:2)는 "오는 세대의 삶이다"라고 말했습니다. (179페이지).

45 마태복음 12:32; 마가복음 10:30; 누가복음 16:8, 18:30; 에베소서 1:21; 히브리서 6:5을 참조하십시오.

3

코스모스 (세상)의 모순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현재의 악한 세대를 최고로 사악한 사탄, 마귀의 우주적 본성에서 기인된 다고 하십니다. 사회의 모든 부분에 스며있는 마귀의 본성은 구원의 복음을 미묘하고 파괴적인 방법으로 왜곡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고, 사탄의 미혹을 물리칠 수 있는 진리를 멀리하게 만들면서 더욱 발전합니다.

사탄의 활동을 통제하는 것은 신약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이해 하였듯이 보편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사탄과 그의 일군들을 멸절 하시는 메시아로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악의 세력과 용서가 없는 전쟁을 하신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신약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마귀의 권세인 질병이나 적대적 종교나 정치적 권세들과 지속적으로 대항하고 계시는 것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은 마귀의 세력을 뒤집어 놓는 것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 하기도 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8).46 이것이 예수님께서 죽음심으로 인간의 최고의 원수를 물리치시는 메시아의 승리입니다. 요한께서는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라고 말씀 하셨고 (요한일서 5:19), 이 승리는 승리의 완성은 아직 아닙니다. 그러나 반가운 사실은, "세상신"인 (고린도후서 4:4) 사탄은 그 사악한 짓을 하는 기간이 매우 짧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결정적으로 세력을 상실 하면서 메시아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16:20; 계시록 20:1-6).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온 세상을 뒤 덮을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성경 전체에 기록된 메시아에 관한 진리입니다. 모든 신약성경은 저자 별로 메시아에 관한 사항들을 묘사하여 기록 하였습니다.

---

46 베드로도 예수님의 사역을 동일하게 요약하여 말씀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사도행전 10:38)

(58p)

신약성경 전체에 기록된 메시아의 사역은 극적입니다. 메시아께서 대항 할 수 없는 능력으로 무관심과 무신적인 사회를 무너트리시면서 세상의 통치권을 발휘 하실 때가지,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하게 됨에 따라서 긴장하게 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디모데후서 3:13).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데살로니가후서 1:7, 8; 마태복음 24:37-39).

바로 이렇기 때문에 신약성경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도전적인 질문은, 기독인이라고 하는 교회들이 왜 성경의 기록과는 다른 사상으로, 이 세상의 미래에 대한 신약성경의 사상을 흘러간 철학적 성격의 사상으로 폐기시켜 버리고, 마지막 날에 재림하시는 메시아에 대한 소망까지 없애버리는 사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가 입니다. 반드시 당면해야만 하는 질문은 왜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대로의 메시아관으로 형성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것이 정당한가 입니다.

(59p)

4

반메시아적 경향의 현대신학

현대 신학자들의 연구를 읽으면서 신약성경의 메시아관이 점잖게 부인되거나 빠져버리는 것에 대하여 충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너희는 그리스도를 누구라 생각 하느냐, 누구의 아들이냐?"하는 질문에 대하여, J. A. T. Robinson은 말씀 하시기를 "그 것은 유대인들이 답변 할 수 있는 유대인들의 질문입니다." New English 성경번역에는 "메시아에 대한 너희들의 의견은 어떠하느냐?" 그러나 이 질문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이 질문이 기독교인이 내린 정의가 아니고 바리새인들을 가르치기 위한 질문으로서, 기독교인에 의해서 이 대두 되었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기독교인에게 가르치시기 위한 것이기도 되지 않겠습니까? Robinson의 생각은 "그리스도는 엄격하게 역사적으로 그리고 지리적인 조건을 갖고 있는 데, 이 것은 현대 유대인과 구유대인이 모두 당면한 사실입니다." 47 히브리에 대한 신약성경 저자들은 독자들이 다윗의 후손이 아버지 나라의 위를 물려받는 다는 나단선지자의 약속을 알면서 신약성경을 읽는 것을 전제하고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아 사상을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5; 시편 2:7; 사무엘하 7:14).

시편 110:1은 전적으로 메시아에 관한 기록이며, "만물의 회복"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로서의 재림의 순간을 아버지와 함께 기다리시는 메시아의 모습이 명확하고 자세하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신약성경 저자들이 인용하기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4, 35; 3:21). 신약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기 전부터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실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하셨습니다. 모세도 메시아의 탄생을 직접적으로 예언하셨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신명기 18:15, 사도행전 3:22, 7:37에도 인용되었습니다.)

---

47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 p.p. 1, 8.

(60p)

신약성경으 메시아관의 의미를 왜곡하기 위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법은 근본적 직분에 의하여 명명된 그리스의 명칭을 생략 해 버리고, "그리스도"라는 명칭은 유대교에만 해당되는 것이다라는 주장입니다." 48 기독교는 신약성경 시대 이후부터 시작되고 신약성경의 기록만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높은 사역은 없다는 주장은 예수님이 유대인(구약)성경의 기록처럼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라는 사도적 기독교의 전체의 사상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그리스도"라는 명칭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싫어하셨다"라고 감히 말하기도 합니다. 49 이러한 생각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신앙의 핵심적 계시처럼 메시아로 영접되는 것을 아셨다는 사실과 모순이 됩니다.

>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마태복음 16:15-17)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신 것은 베드라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한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베드로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꾸중을 들은 이유는 베드로가 메시아의 영광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고난과 죽음을 통과해야 한다는 진리를 수용 하기를 꺼렸기 때문입니다.

종종,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님", 혹은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되시기를 원하셨다는 생각으로 우리의 관심을 메시아라는 명칭으로부터 멀리 하게 하려는 것 같습니다. 신학적 견지로, 교회가 예수님께 그 의미의 무게감을 느끼게 하려다 보니, 정치적이고 종말론적인 "메시아"의 명칭을 "예수"라는 명칭으로 대체 할 수 있는 대체적 명칭으로 사용합니다.,,,50

그렇지만, 정치적이고 종말론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메시아"라는 이름은 예수님에 대한 공관복음서의 기록이라는 것은 명백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메시아적의 주된 직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31; 1:41, 49)

---

48 Ibid., p 9

49 Ibid.

50 Ibid.

(61p)

요한계시록에는 전적인 메시아적 용어로,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땅 위에 통치권을 가지고 가시적으로 재림하시는 사건의 예언을 교회들에게 말씀 하시는 유대인적 메시아관의 예수님의 모습이 대단히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10; 20:1-6; 예레미아 23:5, 6 등).

우리는 교회로 합류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다는 의미를 수용하기가 쉽지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하나님 같은 존재를 영접해야만 했습니다. 사도들의 생존에는 이방인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완전하게 배우고, 이해하기 전에는 교회에 들어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죽고 난 후에 신앙의 핵심인 "메시아"와 그 의미를 기반한 신앙이 점진적으로 희미해지고 왜곡되었습니다. 51 이것이 바로 성경적 기독교 신앙을 변절 시키는 예수님의 메시아관의 상실입니다. 또한 이것은 성경의 메시아관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메시아의 사상에 대하여 생소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소망하는 한 분 메시아로 신앙고백을 하는 신약성경적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메시아적 신앙을 방해하는 것은 잘 못 된 것입니다. 이 핵심적 신조의 상실은 적그리스도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요한일서 5:1),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요한일서 2:22).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로 믿는 신앙이 사도적 사역의 기초를 이루는 신앙이라는 사실은 명확합니다. 이것이 신약성경 전체의 일치된 테마입니다.

---

51 Ridderbos는 말하기를 바울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라는 용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이라는 공식적 직분을 흐리지 않습니다. "바울서신서에 그리스도의 관한 많은 부분이 추후의 습득인 것으로 설명되었을 지라도, 역사적인 이스라엘 민족적 의미를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 바울신학의 요약*, London, SPCK, 1977, p. 51)." "그리스도"가 올바른 이름으로 생각되는 것은 우리 이방인들에게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약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는 다가오는 세대에 온 세상을 통치하실 다윗의 후손으로서의 직함 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의미하는 메시아 사상은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의미로 "메시아"라고 표기 된 것을 읽으면 이해 하실 수 있습니다."

(62p)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메시아 사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교인이 되는 것을 허락했다고 하면, 교회는 기독교인의 원칙적 핵심을 상실했다고 고백해야만 합니다. 52

신학자들이 "그리스도"의 용어는 별다른 의미가 없이 예수님의 성씨이고, 히브리의 공식적 직분의 의미는 상실되었다고 한다면, 원래의 믿음이 올바르게 발전된 것이 아니고 상실 된 것입니다. 사실 거의 모든 신학자들은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별로 믿지 않기 때문에, 별로 슬퍼하지 않으면서 "소규모의 교파 외에는 "메시아의 사상은 죽었다"라고 발표합니다.

이 것이 바로 아직도 예수님이 메시아의 나라에 왕 이시고, 땅 위에 메시아로 재림하셔서 통치하실 것이라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메시아 사상을 지키고 있는 소수의 신앙심을 제외하고, 신약적 기독교는 상실되었다고 말 할 수 있는 다른 한 근거입니다. 주기도문에 "나라이 임하옵시고"의 기도가 예수님께서 재림 하셔서 온 세상에 메시아의 나라를 설립 하시는 것에 대한 눈물의 부르짖음이 아니라면, 신앙을 지키는 그 소수는 "나라이 임하옵시고"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사상이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는 이상, 하나님의 나라와 메시아의 신앙이 상실되는 것이 치명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관의 사상을 설명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해석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도달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재해석의 시도가 메시아의 올바른 의미를 부인하는 기독교를 다른 표현으로 다시 기록될 가능성은? 이것이 메시아의 가르침에서 메시아를 제외 시키는 말도 되지 않는 모순을 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

52 J. Y. Campbell은 *신약성경에 기록된 신학적 단어* (ed, Alan Richardson, SCMPress, 1979, p. 46)에서 말하기를: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라는 명칭은 새롭고, 다른 명칭으로 배웠는데, 단지 "예수님" 을 표현하는 호칭의 하나로 배웠습니다. 또한 말하기를 만일 예수님게서 "메시아" 라는 이름을 새로운 의미의 이름으로 호칭 되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이해하시지 못 하셨을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메시아"라는 단어의 의미의 상실은 예수님의 상실입니다. 이것은 참 메시아를 신약성경과는 다른 거짓 메시아의 구원으로 변환 시키는 것입니다.

53 하나님의 인간의 모습, p. 9.

(63p)

필수적인 메시아 사상이 없는 기독교를 사도적인 기독교라고 할 수 가 있겠습니까?

(64p)

5

영지주의의 영향

예수님께서 성경적 단어의 의미로서의 메시아라는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한 근본적인 원인은 발견하기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적 메시아 사상 속에 제한 되어 있는 "그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한 첫 번째 요소로서, 인간의 속에서 어떤 보편적인 존재가 말씀하신다는 영지주의에 의한 영향력이었습니다. 54 사도들은 성경적 기독교의 사상이 된 유대인적 메시아 사상을 보존하기 위하여 영지주의자들의 위협과 계속적으로 싸웠습니다. 55 영지주의의 첫 번째 대상은 사도들이 믿음을 지키며 죽은 사람은 영생으로 부활 한다는 진리입니다. 이 부활은 메시아께서 그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재림 하실 때에 발생할 감격스러운 사건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고린도전서 15:22, 31).

부활에 대한 신약성경의 순수한 신조를 고수하기 위한 투쟁은 불행하게도 사도들이 죽은 후에 여러 세기를 거쳐서 상실 되었습니다. 교회들은 우리가 전투에서 이기고 있다고 말은 했어도, 실제 영지주의에게 부분적인 항복을 하였습니다. 죽은 후의 인간에 대한 기독교의 가르침이 예수님이나 사도들의 가르침이 영지주의적으로 변질 되고 말았습니다. 신약성경에는 죽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에 다시 살아 날 때 까지 "잠들어 있다" (고린도전서 15:18, 20; 데살로니가전서 5:10)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56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28, 29).

---

54 J. A. t. Robinson, 하나님의 인간의 모습, p. 7.

55 참조의 예, 디모데전서 6:20; 대모데후서 2:18; 고린도전서 15:12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AD 150에 Justin Martyr께서 경고하신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자칭 하면서 성경적 부활의 진리를 거부함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감히 불경하게 대하는 사람들에게 현혹되면, 죽은 자의 부활은 없고 다만 영혼이 하늘로 승천하는 것이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라고 생각 하시면 절대 않됩니다. *(Trypho와의 대화, ch. 80)*

(65p)

죽은 자가 부활을 통하여 생명으로 돌아오는 모형은 유대인들의 인간은 정신적(영적) 존재라는 사상에서 기인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다시 살리라. 그래서, 부활에 대한 다니엘서 12:2의 예언은 선언하시기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영생"은 의미적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입니다.).

현대의 많은 교회들에서의 부활의 의미는 참된 신앙 속에 영지주의가 스며들어서 성경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 변질 되었습니다. 장례식의 설교와 전혀 교육을 받지 못한 어릴 때의 생각으로 형성된 대중화된 믿음은 거의 모든 교단의 유능한 신학적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죽은 사람을 육체를 버리고 하늘에 살아 있는 존재로 생각 합니다. 이 것은 히브리 사람들인 신약성경의 저자들과는 모순되고 이해 할 수 없는 사상입니다. (이방인이었던 누가도 전적으로 부활에 대하여 히브리인들의 생각에 흠뻑 빠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통속적인 가르침은, 망자는 죽은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상심한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함이라는 목적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것은 미래의 부활의 소망을 참담하게 짓밟는 효과를 끼치고 (또한 신약성경에 기록된 미래의 하나님의 계획 까지도), 신앙신조에 잡다한 꼬리를 달게 만듭니다. Tyndale께서 로마교회와 논쟁을 하실 때에 "죽은 사람들이 이미 천국에서 그들의 영광을 얻었다면 미래의 죽은 자의 부활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반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첨언해서, 메시아께서 재림하셔서 땅 위에 세우시는 메시아의 나라는 무슨 필요인가? 기독교 믿음의 궁극적 목표가 예수님께서 통치를 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신 다는 초점에서 벗어나면, 신약성경의 참된 관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신약성경에 기록된 미래의 하나님의 계획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충격적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죽은 후에 대한 기독교의 가르침과 부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적 기독교인으로 돌아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에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미래에 대한 기독교인의 소망을 되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66p)

장례예배의 집례자는 J. A. T. Robinson의 말씀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우리의 모든 서구문화는 죽은 자들에게 허풍을 제공하는 방법을 고안해 내었습니다. 죽은 자와 죽음에 대하여 엄청난 과장이 생겼습니다. 신약성경책이 마르기도 전에 시작 되어서, 기독교인의 사상에 역사적으로 가장 주목 할 만한 조용한 혁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가르침과 찬송가학은.... 당신이 죽으면... 하늘에 가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가고.....성경책의 그 어디에도 우리가 죽으면 하늘에 간다는 기록도 없고, 죽은 자가 하늘로 간다는 표현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웨슬리의 말씀은 "Bid Jordan의 분리된 좁은 문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하늘로 인도하신다"는 말은 성경의 기록에는 없습니다. 57

사도적 기독교의 회복은 설교자들이나 성경교사들이 미래에 대한 사도들의 이해와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은 한 어렵습니다. 신약성경적 기독교는 전통적 구습을 타파하면서 발생되었습니다. 신약성경적 기독의 재건은 예수님의 재림과 땅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두는 기독교의 사상의 회복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나라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선지자들의 비죤입니다.)에 대한 명확한 비죤이 없이는 우리는 예수님이나 사도들의 가르침을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적 신학의 기능은 성경의 본래의 히브리적 가르침이 이방의 그리스철학의 요소에 의해서 침해 된 부분들을 제거 하는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과 선지자들이 정의 한 것과 동일하게 정의를 내려야 하고, 예수님께서 영광의 재림을 하실 때에 이 땅에 평화가 구현되는 미래의 메시아적 소망을 혐오하는 이방적 혐오감을 버려야만 합니다.

---

57 세상에 교회가 됨으로, SCM Press, 1960, pp. 129, 130, 131

(67p)

6

신화적 요소의 타파

전통적 구습을 타파하고 초대교회의 가르침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바램은 마음이 끌리는 고무적인 일입니다. 초창기 당시에 메시아를 따르던 사람들이 받았던 공통적인 은혜를 느끼고 경험하는 것을 대단히 감격 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신학은 우리를 다르게 유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논쟁이 되고 있지만, 우리가 할 일은 신약성경에서 현대의 과학적 양상에 부합되지 않은 가르침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더 자세하게 말씀 드리면, 동정녀의 출산, 이적과 기적, 예수님의 실제적 부활과 재림과 같이 과학적으로 증명 할 수 없는 민감한 부분들을 현대적인 용어로 재 해석되어야만 합니다.

"신화적 요소"를 타파하는 과정의 범위는 저자들에 따라서 다양하겠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것은 우리의 지혜로는 예수님과 초대교회가 믿었던 그대로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신약성경의 이적과 기적은 거의 모두 발생해야 합니다. 발생하지 않는 기적들은 "심리학"적으로 해석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실제로 다시 나타나신 부활과 비어 있는 무덤은 "더 쉽게" 이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동정녀의 출산만이 예수님의 특별성을 표현 할 수 있는 방법인가. 생물학적으로 수용하기가 불가능한 사건이고, 미래의 재림이 예수님의 실제적인 현현이라야만 하는가.

신약성경의 핵심이 없어져서 이적과 기적만 남게 되면, 기독교 경전에 대한 능숙한 공격을 막아 내는 것이 인정 받는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상상 조차 할 수 없습니다. 아마 그럴 것입니다. Oscar Wilde가 꼬집어서 말 하기를, "종교의 진리는 견뎌 낼 수 있는 사견이다." "현실적 진리는 예수님과 사도들의 믿음과 가르침입니다."

(68p)

7

하나님의 나라가 생략된 전도적 복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전도의 사역에서 성경말씀이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권위이고 최종적근본이라는 원칙을 무시하는 것은 종교적 무질서로 돌입하는 문을 열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자들은 성경말씀에 비추어서 조심스럽게 연구하지 않고 아무런 생각이 없이 성경적 진리라면서 수용합니다. "오직 성경"이라는 개혁의 표어를 단지 성경말씀을 *전통적 방식*으로 설명한다는 의미로 여깁니다. 루터와 칼빈도 성경말씀 위에 그들의 신조를 조직했습니다.

이 원칙이 복음적 전도의 정의라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58 다시 한번 말씀 드려서, 무시되어 버린 신약성경의 메시아에 관한 진리입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선포한 복음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이었습니다. 59 복음에 대한 설명에서 대단히 중요하지만 간과되어 버린 누가의 설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수용하는 것은 세례(침례)를 받기 전의 필수요건입니다. (사도행전 8:12; 19:8; 28:23, 31).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필수적 기초로서 여기신 예수님의 복음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43). 그러나 전통적 기독교가 성경적 메시아관의 하나님의 나라를 잘 못 설명하여서 "예수님 안에서의 믿음"에 대한 복음을 부분화 시켰습니다. 복된 소식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생략되어 버렸습니다. 문제는 강한 종말론과 메시아 사상이 결합되어 구성되었다는 복음이 예수님과 사도들이 설교하신 복음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 하늘로 간다"라는 전통적인 신앙과 예수님의 재림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부활에 대한 신앙은 명백하게 다릅니다.

---

58 하나님의 나라가 사도적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사도행전 8:12; 28:23, 31; 19:8; 20:25를 제외하고 통상적으로 고린도전서 1:15:1-4에 대하여서만 반박합니다. 고린도전서 15:1-4에서 바울 사도는 "그 가운데 선 것"이라고 말씀 하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핵심적인 진리를 강조하십니다. *(en protois, v. 3).*

59 마태복음 4:23; 24:14; 누가복음 4:43; 사도행전 8:12; 28:23, 31

(69p)

신약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된 소식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14, 15의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로 우선 바꾸어 말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세상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이 계획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이 복된 소식을 전파하셨고 병이 치료되고 귀신을 좇은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분간 교회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사역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돌아 가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사함과 구속이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께서는 이사야 53장에서 **고난의 종**으로서 예언되었고, 말씀 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죄사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메시아께서는 또한 그의 지식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이사야 53:11).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를 회개와 죄사함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영접함으로서 주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11, 12).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복음에 본질적인 필수요건을 말씀 하십니다. 메시아의 말씀은 순수한 회개와 이에 따른 죄사함은 마음이 소경이 되어 있거나, 예수님의 복음설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 마태복음 13:19)를 영접하지 않거나, "다가오는 세대에 대한 설교말씀" (요한복음 6:68)을 영접하지 않으면 주어지지 않는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죄는 요한복음 16:9의 기록과 같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다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4, 15을 통하여 복음으로 가르치시는 것을 믿는 것이라는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신약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치시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구원의 필수적인 요건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테마로서, 하나님께 의해서 올바르게 (의롭게) 된다는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복음을 이해하고 영접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이고, 이는 다니엘서 12:3에서도 발견 할 수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서 12:3).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43을 통하여 반복 하시기를 "그 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세례 (침례)를 통한 기독교 사회로의 입문은, 필수적으로 "하나님나라의 복음의 진리와 예수님의 이름에 관한 진리를 영접하고 붙잡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12; 28:23, 31).

(70p)

하나님과 그의 아들에 대한 희생적 신앙의 증표로 주어지는 세례(침례) 후에 우리는 우리의 남은 인생을 미래에 발생할 위대한 사건과 만물의 새로운 질서 속으로 안내하는 역할의 준비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가라" 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18)

신약성경 복음서에 재림과 이를 수반한 나라의 설립은,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에 더불어 말씀의 중심부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하나님나라는 복된 소식을 믿음으로서 거듭 날 수 있는 말씀 (마가복음 1:14, 15) 전에 선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믿고자 하는 사도들도 메시아께서 통치자로 재림 하시고 땅 위에 평화가 회복 될 때에 통치권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직분으로 소명을 받았습니다. 완전한 기독교인으로서의 근본적 푯대가 서는 순간 부터는 위협을 두려워 하지 않습니다.

>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대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마태복음 19:27, 28)
>
>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마태복음 25:31)
>
>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누가복음 22:28-30)
>
>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2:32).
>
>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누가복음 19:15, 17)
>
>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고린도전서 6:2, 9).
>
>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디모데후서 2:12).

(71p)

>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요한계시록 3:21)
>
>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5:10)
>
>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 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 년 동안 왕 노릇 하니." (요한계시록 20:4)

미래의 나라에 대한 상기의 말씀들과 이 말씀을 믿는 신앙은 현재의 전도사상에는 없습니다. 신약성경적 복음을 전통적인 것으로부터 구별하려는 심각한 노력은, 복음에 대한 의논과 설교에 "나라"라는 단어가 빠져 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던 당대의 정직한 전도자들에 의해서 실천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에 대한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본질적인 메시아 사상이 없이 이방인화 되어 버린 신학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들은 그들이 전파하는 복음이 성경을 기초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놀랄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께서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지냄과 부활의 3개의 요점으로 복음을 정리하신 고린도전서 15:1-4의 말씀을 펼칠 것입니다. 그 것은 그대로 사실인데, 바울사도께서 고린도전서 15:3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의 말씀은 New International Version에 영문으로는 "as of first importance" ("첫째로 중요한 것으로서입니다.")의 말씀을 고려해서 읽지 않았습니다. 바울사도께서 복음으로 설교하신 것이 이 것이 전체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사도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관한 것"을 설교하셨고 (사도행전 28:23, 31), 이 말씀은 구원의 복음으로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선포 되었습니다. 빌립사도께서도 사도행전 8:12에 정확하게 동일한 내용을 설교 하셨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복음의 요소에 없어서는 않되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의 전체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전통적 전도자들의 신앙과 조직신학 교과서의 오해는 구원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빼놓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학이 예수님의 설교에서 예수님을 분리 시키는 오류를 초래합니다.

(72p)

이 것은 예수님을 복음의 일부분으로서 죽으시기 전까지 오랫동안 구원에 대하여 많은 것을 가르치신 역사적인 예수님의 사역으로부터 예수님을 분리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복음의 반은 예수님의 죽으심이고 나머지 반은 부활이라고 것은 근본적으로 거짓입니다. 이러한 분석은 메시아께서 설교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앙은 구원의 필수적이라는 복음을 생략해 버리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하나로 요약을 하시고, 그 말씀을 실천하셨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푯대가 되는 기준입니다. (요한복음 12:44-50; 마태복음 7:21-27).

마가복음 8:35-38의 기록에는, 예수님께서 구원의 절대적인 기준으로서 복음과 말씀 안에서의 신앙과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 하십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선포하신 모든 말씀들을 포함해야 합니다. 메사아께서는 사람들에게 내가 죽는 것을 보아라라는 말씀이 아닌 "들으라"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도들에게 가장 첫 번째의 주제라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이 사실은 그리 놀랄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잘 이해하지 못 했던 사항 (누가복음 18:31-34) 이었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어주신다는 진리가 선포되기 전에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근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훌륭하게 가르치십니다. 사도들은 십자가에 관한 진리를 알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사실이 왜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근본적인 요건이 성취되고 있다고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로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새로운 진리를 선포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8:12; 28:23, 31). 우리는 바울사도의 전체사역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의 근본을 하나님의 나라로 여기신 것처럼 (누가복음 4:43),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라는 사실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20:25).

(73p)

그러나, 국제적인 전도사의 모임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is not our language (우리와는 무관 합니다라는 의미)" 라고 말하는 전통적인 전도자들이, 사도들이 사역하신 것과 같은 맥락의 신앙으로 사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60 만일 그들이 하나님이 나라가 그들의 언어가 아니고 무관하다면 그들은 완전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생략되어 있는 현실은 메시아와 성도들이 땅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한다는 메시아적 하나님의 계획을 재발견을 해야만 고쳐 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메시아의 사역이 기독교 신앙의 중심으로 환원시켜야만 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의 베드로의 고백은 결코 조금이라도 수정되거나 변질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그 어떤 비성경적인 생각에 의해서 왜곡되지 말고 기독교의 신앙에 단단한 기초가 되어야만 합니다. 성경말씀에서 메시아라는 이름의 확장은 명백하고 간단하게, 시편 2:7과 다윗적 약속인 사무엘하 7:14를 기초로 하면 됩니다. 성경에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호칭 하는 것은 단일하신 분, 기름부음을 받으신 하나님의 대리권자로 의미한 것과 같습니다. 전도자들은 성경 이후에 메시아 사상이 결여된 기독교관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라는 호칭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두 개의 호칭이 서로 다른 의미로 발전된 그 차이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 할 수 있는 말씀은 누가복음 1:35의 기록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에 대한 명석한 표현이 있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신앙으로, 그 분을 무어라고 부르든지, 성경으로 계시된 그리스도가 아닌 존재를 다른 존재로 상상하면서 그리스도께 예배드리는 것은 거짓 그리스도께 드리는 예배이다." 61 하나님의 나라 (전통적 전도학에서 나름대로의 신학이 있습니다.)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참된 모습과 사역에 대한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예수님을 기초하여 조직된 복음, 이 두 개가 신약성경적 믿음의 전체적인 사상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하여야만 합니다. 영접하려는 믿음의 내용과 설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를 통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려는 사람들에 의해서 심각하게 조사되고 연구되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4:24).

---

60 Michael Greene, Lausann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World Evangelization, 1974

61 R. A. Cole, Tyndale 마가복음 신약주석, Intervarsity Press, 1961, p. 199.

(74p)

세 분의 성경전문가들로 인해서 우리의 요점은 결론지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분들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모든 전도사역에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독교 신학자의 한 분이신 Tom Wright께서 말씀 하십니다.

> 교회들이 복음이라고 사용하는 용어는 실제적인 예수님의 생애와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 (구원의 복음)에 대한 내용에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앉아 있기는 한데, 핵심내용에 대하여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원인조사가 이루어져서 교회가 새롭게 개혁되어 변화되어야 합니다. 무조건 스스로 경건 (불경건 이든지)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1세기의 유대사회에 말씀하신 복음의 내용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역사에도 없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좇으려고 하고... 신약성경의 기독교와는 다른 것을 실천하고.. 62

테네시주의 Emmanual School of Evangelism, Emeritus of World Mission의 교수이신 Charles Taber 박사님의 저서인 *오늘의 기독교에 보내는 서신*에서 말씀 하시기를,

> 저는 대단히 지대한 관심을 갖고 ***오늘의 기독교***라는 제목의 책이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이 조금도 없는 사실에 대하여 놀랐고 경악했습니다. 복음에 대하여 개인별로 축소시킨 기록들이 미국의 전도신앙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기독교인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초한 신앙을 정립하는 것은 수 세기에 걸쳐서 불필요하게 신학자들을 괴롭게 만드는 두 개의 딜렘마를 피하게 할 수 있는데, 1) 구원이 개별적인가, 조직적인가, 혹은 둘 다인가, 2) 은혜인가, 행위인가, 혹은 둘 다 인가. 하나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인데, 또 다른 하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 할 수 있겠습니까?

Gary Burge께서, *NIV 응용주석에서 ("전도신학의 개편")*에서 말씀 하시기를, 현대 구원론에 예수님의 복음의 생략에 대한 우려를 하셨습니다.

---

62 *예수님과 이스라엘의 회복, p. 251.*

(75p)

""Stanley Grenz께서는 전도신학이 현대화된 세상을 상상하는 사상을 없애려는 시도의 실패에 대하여 검토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말과 실천의 새로운 조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십니다.

이 말씀은 현재 교회들이 *성장*하려는 노력이 실패하는 데에 대한 원인에 대한 좋은 답변이 될 수 있겠습니다. 현실은 새로운 신자는 매우 드뭅니다. *"교회성장"*이라는 것이 스스로 성도라고 하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한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초적인 논리가 계속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윈스톤 처칠께서 효율적으로 대화를 하는 방법에 대한 충고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이 만일 중요한 안건이 있다면, 애매하게 하거나 재치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커다란 말뚝을 막는 망치처럼 하십시오. 사언을 강하게 말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강하게 말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 강하게 말씀 하십시오. 강하게 "쾅".

(76p)

8

이방종교와의 혼합

역사가들은 기독교와 유사한 이방들의 신비적 숭배사상들이 있다는 충격적인 말들을 합니다. "그 사상들의 공통점 중의 하나는 기조예식입니다.

미드라 (Mithraism) 사상에는 기독교의 세례(침례)와 동일한 사상이 있습니다." 63

애티스 (Attis) 숭배사상에는, 젊은 퀴벨레 (Cybele)가 사랑한 에트스 (Attis)가 구원자로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을 했는데, 그 죽음에 대한 축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방족들의 신비적 이교와 전통적 기독교 절기가 유사한 것은 이뿐 만이 아닙니다.

> 만일 이스터 (Easter – 부활절의 다른 표현)라는 용어가 퀴벨레에서 유래되었다면, 성탄절의 많은 부분은 미드라 (추가로, 고대 로마제국이 농신제(Saturnalia) 때에 기쁨으로 선물을 교환하는 전통)에서 유래 되었습니다. 태양과 함께 하는 신, 미드라에 대한 축제일이 12월 25일인데, 그 날이 기독교의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미드라는 예수님처럼 기적적인 출생의 신비와 어린 시절부터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힘이 있어서 주변의 양치기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끌었었다고 믿습니다. 또한 미드라 숭배사상은 기독교처럼 예식 중의 하나로 성찬식이 있습니다. 신비적 이방신 숭배사상과 기독교와 유사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구원사상입니다. 이렇든 저렇든, ISIS, 퀘벨레, 그리고 미드라 모두 다 구원주라는 것입니다. 64

이렇듯 기독교가 신비적 이교들과 혼돈하여 이방인 성도들에게 잘 못 전파 되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메시아를 이방인의 용어로 해석하려고 하는 추세와 영지주의적 전통적 기독교의 주장이 중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널리 알려져 있는 루터교의 한 신학자는 신중하게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습니다.

---

63 Michael Arnheim, *기독교가 진실인가?* London: Duckworth, 1984, p. 127.

64 Lbid., p. 27.

(77p)

> 초대교회에는 마지막 날의 부활이 소망의 핵심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죽은 자가 영생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빌립보 3:20 이하). 부활은 *사람들에게 뿐만이 아니고 몸에도* 발생 할 것입니다. 바울사도께서 말씀 하시기를 부활은 "몸만 다시 살 뿐만이 아니고", "죽은 자도 다시 살아 나는 것이다:" 부활에 대한 이 말씀은 함축적인 해석으로 *죽음은 인간의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근본적 개념이 그리스의 영지주의적 이원론으로 변질 되었습니다.* 인간의 전체에 미치는 신약적 부활사상은 영혼의 영생에 전적으로 맡겨지는 것입니다. 영혼은 이미 오래 전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영생을 받기 때문에 마지막 날의 심각한 의미도 없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유도되는 종말에 대한 긴장감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것과 신약성경적 소망의 차이점은 대단합니다. 65

Norman H. Snaith, M. A., D. D.,은 우리의 논의에 중대한 자료를 제공 하십니다. 그 분은 "공식적" 기독교라고 하면서 말하는 것에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 신약과 구약의 모든 성경은 히브리인의 자세와 접근방법에 의합니다. 커다란 범주로 이 사실을 전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기독교신학이 성경적신학과 대단히 상이하다는 사실을 자주 발견합니다.* 수 세기 동안 성경책이 그리스적 배경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신약성경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바탕으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 철학의 영향으로 재해석 된 성경신학이 수 세기를 걸쳐 널리 퍼져서 기독교 신학의 본질을 파괴시켜 왔습니다. 만일 이 판단이 옳다면, 옳다고 믿는 다면, 카돌릭신학이든 개혁신학이든 모두 성경적 신학이 아닙니다. 두 신학 각기, 그리스 사상의 지배를 받는 기독교신학입니다.

추가해서, 전적으로 불편한 사항은 널리 의논이 되어온 대로, 엄격한 성경적 일신론의 한 분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하여 순결한 사도들의 신앙 이후의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논의가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

65 Paul Althaus, *마틴루터의 신학,* Philadelphia: Forthress Press, 1966, pp. 413, 강조문구 추가.

66 *구약의 독특한 사상*, New York: Schocken, 1964, pp. 185, 187, 188, 강조문구추가

(78p)

바울사도 (예수님과 같이) 께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일신론에 대하여 이론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 아들"이라는 미세한 차이의 표현이 삼위일체론자들의 질문이 생기게 하였습니다. 성경에 세분 하나님 중에 두 번째 분이 성육신 하셨다는 교리의 진전의 여부를 없애자는 의논은 성경을 기초했다는 전통적 교리가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 전에 전도자들에 의해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67

그 문제에 대하여 그렇게 자세히 까지 논쟁하기를 원치 않는 분들은 마가복음 12:28-34에서 예수님의 유대적 기독교에 대한 신조와 고린도전서 8:4-6에 기록된 기독교인의 신상에 대한 바울사도의 신앙고백을 삭제 해 버리는 것을 생각해 보셔도 괜찮을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한 분이신 하나님과 한 분이신 주님 메시아의 정의를 예수님처럼 독특하고 신중하게 표현합니다. "한 분 하나님 외의 신은 없다.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하늘과 땅에 여럿이고 (신과 많고 주도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이시고, 주님도 메시아 예수님 한 분 이시다."

바울사도께 서는 사도직을 마치면서 다 한번 사도적 신조를 반복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디모데전서 2:5)

이러한 말씀들은 바울사도께서는 예수님처럼 유대인들의 유산인 일신론 사상을 한 순간도 떠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한 분 하나님에 대한 기독교의 일신사상은 아버지입니다. 당대의 신학자들과 같이, 삼위일체적 일신론이 아닌, *아버지*이신 한 분 하나님의 일신론입니다. 요한도 다른 신약성경의 저자들과 같이 일신론의 하나님에 대한 변치 않은 증인입니다. (요한복음 5:44; 17:3). 요한께서 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31).

---

67 다음의 예를 참조하십시오. James Dunn (Eedermans, 1996)의 *조직되는 기독론*); J. A. T. Robinson 9SCM Press, 1973)의 *하나님의 인간의 모습*, 특히 5장; Geoffrey Lampe (SCM Press, 1977)의 *성령으로서의 하나님,* 5장; 특히 James P. Mackey (SCM Press, 1983)의 *기독교인의 삼위일체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경험,* 6장; "아들의 선제에 대한 문제점"

(79p)

9

신약적 기독교를 회복하는 소명

신약성경은 우리에게 교회에 대한 간단한 교리를 가르치십니다. 현재에는 영적으로 구성되어서 서로 평등한 관계인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이스라엘" (갈라디아서 6:16; 빌립보서 3:3)의 지속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이 사회의 시민을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요한복음 15:19)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신(고린도후서 5:20)이 되어서 이 세상과는 다르게 구별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전통적 기독교의 가장 난감하고 당혹스러운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대로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것은 사도로서의 필수 사항으로 예수님의 산상수훈 설교에 세밀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원수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원수를 사랑하라 (마태복음 5:38-48)을 새로운 윤리를 실천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기를, 예전에는 이스라엘의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전통이었지만(이스라엘의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허락 된 적은 없습니다.), 기독교의 윤리는 모든 원수를 대적하지 말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 하십니다. 이 가르침은 전쟁을 하는 것과는 대단히 다르다는 것을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말씀으로 분별을 하면, 전투적과 비전투적인 사람, 나아가서는 신앙인을 핵무기로 위협을 하는 현대의 상황의 전통적 전쟁이론은 전적으로 잘 못된 것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의 중요한 표적은 사랑으로 하나가 됨으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세상에 들어내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35)

사랑으로 연합된 이 사회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골로새서 3:11), 또한 이렇게 말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인이나, 러시아인이나, 불란서 기독교인이나", 그리스도께서는 만유이시고, 만유가 그 안에 있다.

(80p)

기독교인은 국가가 다르다는 이유로, 원수들과 싸운다고 하면서 기독교인 형제들이 피를 흘리게 하는 죄를 범 할 수 있는 폭력적인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첫 번째 가르침 이시라는 것은 명백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에 루터란 기독교인들과 영국의 기독교인들이 서로 셀 수 없는 형제들을 살해한 사건과 같이, 영적인 기독교인들을 대량으로 살상 할 수 있는 무기를 고려한다는 것은 정말 불법적 행위입니다. 68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과 같은 방법은 오직 "세상에서 구별되어"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됨으로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신약적 신앙을 실천함으로 국가들과 구별되는 것은 이러한 적대적인 세상에 "외국"에서 파송된 대사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땅 위에 통치자로 재림하셔서 구현되는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나라를 목격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이 악한세상에 시민이 아닌 임시거주자로 돌아오는 것은 "아브라함의 씨" (갈라디아서 3:16) 라는 성경진리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하나의 씨로 모든 참된 성도들을 하나로 연합 하실 것입니다.

---

68 기독교인이 서로 죽고 죽이는 모순된 모습을 본 영국교회의 주교가 말하기를, "기독교인들은 각자가 그리스도로 여기면서 인간관계를 해야 한다. 이 것이 바로 새로운 계명입니다. 이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사도라는 증거입니다. 또한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설계된 사랑의 수준입니다. 기독교인이 다른 기독교인을 상대로 전쟁을 할 수 있다는 생각보다 더 모순 되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미치지 않고서야, 예를 들면, 영국과 미국 기독교인들처럼 나가사키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의 육체와 영혼이 불구가 되거나, 죽이는 핵폭탄을 투하하는 것을 찬성하는 것이 어찌 예수님의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과 연결이 될 수 있는 증거가 되겠습니까?" (Perct Harthill, *전쟁, 사회주의와 기독교신앙*, James Clarke and Co., n. d., pp. 47-49)

(81p)

아브라함의 유업인 영구적인 약속의 땅은 또한 그리스도와 성도들에게 주어진 약속이기도 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마태복음 5:5). 땅의 약속은 구약을 꿰뚜는 황금의 실과 같이 신약으로 들어와서, 미래에 지구 혹은 땅 위에 설립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 된 유업입니다. (cp. 요한계시록 5:10; 시편 37:11).

족장들은 약속의 땅에서 "이방인"처럼(히브리서 11:9) 살았으나, 약속의 땅을 상속받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히브리서 11:13). 오직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로마서 4:16)와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만이 그리스도께서 재림 하실 때에 부활하여 땅 (하나님의 나라)을 유업으로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82p)

10

발전을 저해하는 커다란 장애물인 전통

우리가 설명하는 사실들이 수용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사안의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다만 "우리는 이렇게 믿어왔다"라는 것에 대한 고집이, 성실한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의 마음과 같이 되지 않고서는 성숙 할 수 없는 성경적 기독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단순하게 아버지를 "참 된 하나님 한 분"(요한복음 17:3),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설교하시고, 세상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현재는 모든 나라의 성도들의 대제사장이신 메시아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림 하셔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모으셔서, 땅 위의 통치권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아무런 분별이 없이 널리 알려져 있는 "비메시아"적인 신앙이, 우리가 소중하게 이해하고 있는 진리를 포기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성경으로 돌아오게 해야 하는 책임을 갖고 있는 전도자들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예수님의 이름에 관한 것"을 선포하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8:12; 28:23, 31; 누가복음 4:43).

성경에 기록된 사도들의 가르침을 아무런 조건이 없이 수용해야 하는 이유는,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과는 비교 할 수 없는 이상스러운 그리스 철학적, 즉 성경기록 이후에 형성된 철학을 아무런 생각이 없이 수용을 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가 근본적인 것은 아니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문제점입니다. 저명한 옥스포드 학자는 1889년에 다름과 같이 기록을 하였습니다.

> 나는 그동안 기독교의 교리라고 불리는 많은 이론들을 발표해 왔다고 감히 말 할 수 있는데, 기독교의 교회들을 지배하여 왔고 또한 지속적으로 지배 하는 관습들은 초기의 기독교인들의 영향으로 변형되거나, 그 색깔을 바꾼 그리스의 이론과 관습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그리스적 성질은*...

(83p)

우리가 경험한 지나간 현상들을 뒤 돌아 보면서, 떠 오를 수 밖에 없는 질문은 기독교의 본질과 그리스적 관습들과의 관계성에 대한 의문입니다. 이 의문은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합니다. 69.

> 우리가 주장하는 대로 그리스적 사상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변질 시켰다면, 신앙의 기초가 되는 이 사항을 개인적으로, 가족적으로, 교회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 진정한 기독교의 신앙이 아닌 잡초와 같은 거짓을 속아 내는 자극제로서 우리는 또한 영국의 신학자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와 로마 제국의 사상이 히브리사상을 밀어내고 교회의 사상을 지배하기 시작했고, 신앙 생활과 교리에 돌이킬 수 없는 참사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만일 오늘날 전도의 동이 튼다면, 우리는 유대교가 필요합니다. 70

더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이방인적 "예수님"으로 변질되고 가리워진 세상의 **구원자이시고, 유대인의 메시아이신 유대인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Olga Levertoff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 교회는 고대 이스라엘의 개혁적이고 영적인 예언을 되 찾기 위해서 지나간 발자취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는 거룩함과 은혜로 깨어질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1세기의 교회로 돌아가자"는 것이 교회의 표어가 되어야 하는데, 1세기의 교회는 사실 유대적 기독교를 의미합니다.

이 말은 물론 유대교로 돌아가자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과 바울의 순수한 기독교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소망, 즉 재림 하시어서, 성도들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실 메시아 주님이신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신앙입니다.

신약성경을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의 설교와 예언의 권위를 알게 되고, 예수님과 바울을 포함하여, 구약과 친근 해 질 수가 있습니다.

---

69 Edwin Hatch, *기독교 신앙에 영향을 준 그리스 사상*, Peabody, MA: Henderson, 1995, pp. 350-1

70 Canon H. Gouge in *유대교와 기독교의 에세이*, Shears and Sons, 1939.

71 *기독교 사회의 질서 속에 유대인,* New York: Macmillan, 1942

(84P)

널리 퍼져가는 기독교의 변질된 사상은 빠른 속도로 영적 무질서의 상태로 돌입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이 그리스어로 기록되었을 지라도 지배적인 사상은 구약성경에서 파생된 히브리 사상입니다. 중심적인 테마는, 약속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룩되는 복음입니다. 이 원칙이 신학구성의 기초가 되지 않는 신학은 사도적 신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친목적 복음" 혹은 "마음에 존재하는 나라", 혹은 죽음 후의 "하늘"로 해석을 하면, 미래에 발생하는 종말적인 환란은 폐기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사도들의 가르침을 다르게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기독교인의 사상에 **예수님의 재림과 땅 위에 설립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핵심적인 테마로 두지 않고서는,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의 본질을 상실하게 된 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만물을 회복 하시기 위해서 메시아께서 역사적인 재림을 하신다는 소망의 참된 성경적 의미가, 변질되거나 없어져 버린 영지주의적 사상을 물리치고 다시 회복되어 유지 되어야만 합니다. 익히 잘 알려져 있듯이, 신학적들이 여러 종류의 방책으로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없애고 있습니다. "시적 표현"이라고 하면서 없애버리고, 문자적으로 수용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무시 해 버립니다. 비겁한 신학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메시아적 진리를 피하지 말고 수용해야 합니다. 세상에 평화를 주시는 소망에 감사를 해야 합니다.

순수한 언어를 교활하게 해석하려는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 (누가복음 5"1, 8:11)과 거듭나게 만드는 씨 (마태복음 13:19, 베드로전서 1:23-25)의 말씀으로부터 귀를 돌이키게 만듭니다. 우리는 감히 기독교 신앙을 인간에게 적합하게 조작하려고 해서는 않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마태복음 1:18, 20; 누가복음 1:35; 사도행전 13:33)의 *독특*하신 근본과, 그 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고, 사탄이 멸망하면서 재림하시는 순간에 성도들이 부활한 다는 약속, 이러한 모든 말씀들이 포함된 구절인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유다서 3)의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85p)

이 세상은 죄로 타락했다라는 사실보다 더 당연한 말이 있겠습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인류는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사회에서 새롭게 조직되어야 한다라는 신앙보다 더 위대하고 더 겸손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86p)

11

신약의 예언

신약성경 중에서 비평가들에게 가장 심하게 비판을 받은 것이 바로 미래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비판으로 파생된 혼돈과 모순은 주석서에서 발견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과 누가복음 21장과 평형구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자로서의 재림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다니엘에게 계시하신 예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재림 하시기 전에 발생 되는 악한 세대의 마지막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니엘서에 기록된 미래의 사건을 믿으셨고, 제자들에게 다니엘서의 말씀을 근거하여 미래에 발생되는 사건의 의미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마태복음 24:15, 16).

이 예언의 개념을 많은 신학자들이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73 미래를 점치는 "점성술"로 성경을 이해한다고도 하고, "병적인 호기심"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 순진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최소한 1900년 후에 발생할 사건을 말씀 하시겠느냐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

72 마가는 (마가복음 13:14)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으로 기록하여 인간으로서의 적그리스도를 의미하였습니다.

73 Cp. Joyce Baldwin께서 "예언을 점술로 여기는 것을 보고, 교회가 감각을 상실했다고 말씀 하십니다. 세속적이고 이성적인 인문주의는 미래에 발생 될 사건의 성경기록을 막연한 참조라고 여기기도 하고, 심지어는 약간의 조소적인 색채로 기독교 신앙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Tyndale Commentary의 다니엘서, Intervarsity Press, 1978, pp. 184, 185). 주석가들이 바울사도께서 다니엘서 11:36을 데살로니가후서 2:4로 해석을 하시는 것을 거부하면서 어떻게 구약성경의 예언적 말씀들을 논리적으로 이해 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Norman Porteous의 구약성경 도서전집 (SCM Press, 1965, p. 169)의 다니엘서 주석서에는, "다니엘서 11:36은 신학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바울께서는 명백하게 신학적 가치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다니엘서 11:31의 마지막 날을 말씀 하셨습니다. 신학자들이 자신을 예수님이나 바울보다 더 지혜롭게 여기는 것은 비극입니다.

(87p)

예수님께서 AD 70년에 발생할 이스라엘의 멸망을 미리 아셨다는 것은 모두에게 인정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사건 이후에 "예언"이라는 단어로 기록을 했을 지라도!). 그러나, 예수님께서 1세기 이 후의 사건들을 미리 아신다는 것이 주석가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석가들이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지 않고, 이미 이루어졌다는 해석으로 주장하기 때문에 성경의 예언에 대한 연구는 쇠퇴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또한 믿음의 교회들에게 미래의 비밀을 알려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과 마지막 날에 대한 질문을 서슴지 않으시고 가르쳐 주신 것 (마태복음 24:3)으로 미루어 보아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갖기를 원하셨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다음의 동일한 주제의 대화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명백하게 말씀 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마태복음 24:25).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 즉 기독교의 최종적 원수가 예루살렘에 거룩한 통치자로 우뚝 설 것이라는 다니엘의 예언을 알고 있는 것으로 가정하시고 답변 하셨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메시아께서 재림 하시면서 멸망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미래의 배경은 간단합니다. "멸망의 가증한 것" (마가는 "서다"에 남성분사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인간으로 해석 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3:14)은 다니엘이 (마태복음 24:15) 예루살렘에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미리 보았습니다. 이 때에 유대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산으로 도망" 해야 하는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대환란" (마태복음 24:21)으로 말씀하신 무엇과도 비교 할 수 없는 환란이 닥쳐 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멸망의 가증한 것"의 출현과 더불어 닥치는 환란의 때를 상세히 설명하시며 교회가 도피해야 하는 것을 경고 하십니다.

이러한 무서운 환란 직후에(마태복음 24:29), *즉시,* 하늘에서 우주가 혼돈되고, 다음에 메시아께서 구름을 타고 오셔서 선택 된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 모으십니다. (마태복음 24:30, 31). 누가는 기록하기를,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누가복음 21:31). 이 중요한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 때에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많은 예표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AD 70년에 발생 된 사건을 뜻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예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BC 6세기에 다니엘에게 주어진 계시가 기초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사야서의 동일한 의미의 말씀들도 상당히 간과가 되었는데, 이 말씀 들과 함께 모든 말씀들이 종합되어야만, 예수님께서 재림 하시기 전에 중동의 미래에 대한 전체적인 계시가 하나로 구성되고, 또 분명 해 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2장에 의하면, 바울께서는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기 위한 모순된 위협에 반박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말씀 하신 사건들을 조목조목 순서대로 말씀 하십니다. 사도적 배교로 인하여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통치하지만, 예수님께서 영광의 재림을 하셔서 물리치시고 성도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립 하신다는 것을 미리 알고 계십니다. (참조 – 데살로니가후서 2:1-12).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하신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일부분입니다. 그 말씀은, 구약을 기초한 유대인들의 신앙을 처참하게 훼손하기 전에는, 예수님의 다른 모든 말씀으로부터 분리 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다니엘을,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발생하는 미래에 대한 거룩한 계시의 전달자로 수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74 다니엘서에는 최종적 적그리스도에 관하여 많은 분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BC 2세기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적그리스도의 그림자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시고, 또한 제자들도 믿어야 하는 것이, 구약에서 "적그리스도"로 묘사되는 안티오코스는 훗날 성도들을 위협하면서 메시아의 흉내를 내는 훨씬 더 악질적인 존재에 대한 비유입니다. 바울께서도 예수님처럼 이 사실을 가장 심각하게 수용을 하였고, 교회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데살로니가후서 2:5).

---

74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다니엘서를 이해해야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들 중에서 다니엘서는.....신약성경의 근거로서 가장 중요한 성경입니다." (H. C. Kee, *신세대의 사회*, Mercer University Press, 1983, p. 45).

(89p)

바울은 죄인들이 사탄의 미혹으로 메시아의 재림을 심각하게 우화적으로 풍자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도들은 거짓 메시아에게 어리석게 속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과 그 분의 거룩한 말씀에 구속되어 있는 것 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7-10). 바울사도는 적그리스도 (악한 자)가 "재림"과 유사한 가시적인 출현이라고 까지 말씀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9). 사탄의 미혹은 진리와 미묘한 차이로 나타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거짓 메시아의 재림은 휘영 찬란한 거짓으로, 참 메시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흉내 낼 것입니다.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메시아를 거부하는 비극적인 사건을 발생 시킨다고 말씀 하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10-12).

이 지식은 신약성경 사상의 기초적인 진리인데, 교회들은 신약성경의 메시아적 사상에 대하여 소홀하여 기독교 신앙에서 이 진리를 없애 버렸습니다. 신약성경에서 미래에 대하여 가르치시는 기독교신앙의 본질을 회복 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적 기독교 사상에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적그리도에 대한 지식은, 사도적 신앙의 원칙이 되신 예수님, 바울, 요한 그리고 누가를 향한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니엘 선지자께서 7장, 8장, 9장, 11장과 12장을 통하여 예언하시는, 예수님의 영광의 재림 전에 성도들을 핍박하는 포악한 자가 나타나서 7년 동안 다스리는 사건 (가브리엘 천사의 계시인 70"이레"의 마지막 "이레")을 인용하시며 말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7년의 기간을 미래적으로 말씀 하신 것은 다니엘이 말씀 하시는 7년 동안 (다니엘 9:26, 27)에도 활동하는 "가증한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15, 29, 30).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하시는 내용들은 다니엘서 8:13; 9:26, 27; 11:31; 12:11과 그 주변의 말씀들에서 발견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들의 의하면, 이 가증한 것은 황폐하게 만드는 전쟁을 일으키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지만, 예수님께서 "불꽃 같이 재림하셔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고" (데살로니가후서 1:7, 8), "홍수" (다니엘서 9:26; 11:45)의 휩쓸림 같이 쓸리면서 멸망을 당 할 것입니다.

(90p)

이 사건은 바울께서 데살로니가후서 2:8에 적그리스도의 멸망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포악하고 가증한 것이 선 후로부터 약 3년 반 동안 황폐 할 것이고(다니엘 12:7, 11), 마지막의 두번째 이레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다니엘서 9:26, 27의 가브리엘 천사의 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동일한 내용의 말씀이 종말론적인 "짐승"의 권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5; cp 11:2, 3; 12:6, 14).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15을 통하여 말씀 하시는 내용과 부합하는 다니엘서의 구절을 살펴보면, "비천한 사람" (다니엘서 11:21이하)이 중동 시리아나 이라크 지역 (이사야 11:4; cp. 데살로니가후서 2:8; 미가서 5:6; 이사야 30:27-33에서 앗수르로 표기 되었습니다.) 에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환심을 사다가, 이스라엘과 기독교인들로부터 돌아서서, 예루살렘의 통치자가 되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성도들의 부활 직전의 사건으로 계시 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재림 직전에 발생 할 사건으로 그 순서를 자세하게 말씀 하십니다. 다니엘서의 기록은 예수님께서 해석하여 설명하여 주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다니엘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이 세대의 멸망의 직전에는, 전에는 없었던 대환란이 발생 한다고 계시하십니다. (다니엘 12:1; 마태복음 24:21). 마지막 순간은 성도들의 부활로 (다니엘 12:2), 예수님의 재림(마태복음 24:30, 31)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하시는 미래의 계획은, 바울사도께서 미래에 발생 할 사건으로 표현하시고, 성도들이 "삶을 얻는다"는 내용의 말씀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22). 미래의 사건인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에 성도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간단한 내용의 부활은, 성도들은 이미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서 살고 있다는 전통적인 내용과 전혀 부합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순간은, 오직 예수님의 재림(Parusia)의 때에, 즉 부활 한 후에 가능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17; 5:10).

요한계시록에는, 다니엘의 예언과 예수님의 말씀이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9:26, 27; 7:25; 12:7, 11에 기록된 적그리스도가 3년 반을 통치하는 운명적인 사건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미래에 발생 할 사건이고 (요한계시록 13:5), 메시아의 재림과 함께 "세상나라가 그리스도와 메시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기 시작하는 순간에 멸망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15).

(91p)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렸던 성도들이 부활하여 메시아와 함께 더불어 왕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4). 미래에 발생될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계시를 없애 버리려는 주석가들의 노력은, 성경의 말씀을 오도하는 역사 중에서 가장 끔찍한 것입니다. 참수된 성도들이 부활하여 예수님과 더불어 통치하는 것은 당연히 죽음에서 사실적으로 부활하여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현재의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것은 어거스틴 이후로부터 지속되어 온 문제점이고 75, 반메시아적인 전통적 기독교의 추세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 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 하리라 (요한계시록 20:6)는 축복의 "첫번째 부활은" (요한계시록 20:4),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께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발생하는 사건으로 계시 하시는 것입니다. 발생순서는 바울사도께서 계시하신 고린도전서 15:22으 말씀과 동일한 순서입니다. 성도들이 부활한 후에 메시아와 더불어 통치를 시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앞 장에 기술된 대로) 약속과 정확하게 일치 됩니다. 76.

다니엘, 이사야, 바울사도와 예수님의 복음서의 계시의 말씀들이 기록된 광범위한 자료들을 조심스럽게 살펴 보면, 메시아의 재림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시작된 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사도께서 이사야 11:4을 인용하여 기록하신 데살로니가후서 2장의 적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의 대부분이 무시 되었습니다. 그 부분의 내용은 앗수르의 멸망을 뜻하고, 나아가서 이사야 30:27-32:4의 기록처럼 메시아에 관한 의미입니다.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데살로니가후서 2:8). 앗수르의 왕을 의미하는 "북방의 왕" (다니엘 11장)은 이전에는 앗수르와 바벨론 제국의 영토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지역으로부터 성경이 계시하시는 적그리스도가 출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1장, 5절부터의 말씀들은 미래에 발생 할 사건의 예언입니다.

---

75 이 사상은 무천년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76 마태복음 19:28; 누가복음 22:28-30; 요한계시록 2:26; 3:21; 5:10.

77 "앗수르의 왕"이라고 기록된 말씀은 메디안의 통치라로 해석 할 수도 있습니다. (에스라 6:22 참조). 메데인은 자기들이 앗수르의 후임이라고 믿었습니다.

(92p)

그 말씀의 역사는 간략적이고 불규칙하며, 또한 평형구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전 4세기부터 2세기 까지의 앗수르의 왕들과 정확하게 일치되지는 않습니다. 다니엘서 11:5 – 12:3의 서술은 전체적으로 연결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많은 부분들이 비역사적이고 부분적으로도 정확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10장부터 12장까지, 아직 이르지 않은 "미래"(10:14)인 이 세대의 마지막 때에, 사람들에게 발생할 사건들 (예를 들어, 메시아의 나라의 직전의 사건들)의 계시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참고로, 다니엘서를 읽고 이해하려는 사람들은 보물로 간직 해야 할 것입니다. (참조: 다니엘서 10:14과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15).

예수님의 재림 전에 닥치는 고난을 극복하기 위한 위로의 말씀으로, 교회들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서 9:27; 11:31; 12:11 (cp. 8:13)의 멸망의 가증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로 성경구절이 기록된 배경의 상황을 이해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방법이 바로 신약성경의 설교방식입니다. "신약성경에서 구약성경을 인용 할 때에는, 당시의 전체적인 배경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78

"신학"은 예수님이나 바울사도가 설명하는 재림의 직전에 대한 상황이 학자들의 고정관념과 다를 경우에는, 예수님이나 바울의 말씀을 그다지 따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 하신 미래의 사건들을 산상수훈보다 덜 심각하게 여겨야 한다는 논리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신학"은, 예수님을, 소위 적절하지 못하게 여겨지는 감람산의 설교말씀과 분리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해 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신약성경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계시하시는 미래적 예언을 근본적 윤리의 요구보다 권위를 낮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메시아의 메시아적 조망의 반영입니다. 신약성경의 모든 자료들은 역사적 예수님의 모습과 신앙의 구성을 위하여 필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들은, 교인들과 사회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들로 인도하지 않고는 결코 예수님의 의도를 대표 할 수는 없습니다. 79

---

78 D. A. Carson, *마태복음 성경 주석,* Zondervan, 1984, p. 205.

79 James Barr께서 목격하시기를 "전통적 정교는 다른 의견의 반대를 위해서 '골라서 선택하는 행위"의 기념탑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자유'신학은 복음의 교리적인 부분을 더 신봉하고 따릅니다. *(거룩한 말씀, 교리권위, 비평,*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83, p. 40). 불행하게도 "자유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예수님과는 다르게 이해하였습니다. 불트만은 "우리는 인자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시고, 성도들이 공중에서 만난 다는 것을 기다릴 수가 없다"는 간단한 말로 신약성경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없애 버렸습니다. (*Kerygma and Myth,* New York: Harper and Row, 1961, p. 4)

(93p)

전통적인 기독교는 이러한 중요한 가르침을 무시하거나 감추었습니다. 80 그들이 성경의 기록을 선택적으로 믿는 바람에 교회들은 전통에 있는 것만 수용하여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 중의 많은 부분들이 "유대인적" 혹은 "영적이지 못하다"라는 말로 제외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신학에는 지속적으로 셈족은 반대하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이방인적 주석으로 인하여 비참하게 고통을 받아오고 있는 예수님의 메시아 사상 (즉, 기독교)입니다. 신약성경의 메시아 사상과 구약의 예언을 마음대로 주무르면서 거창한 말을 만들어서 "종교적이다" 혹은 "영적이다"라고 하는 반메시아적 경향은, 개혁주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특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기인된 것입니다.

> 루터는 신약성경 해설(1522)의 머리말에서, 요한계시록에 대하여 강한 혐오감을 표현했는데,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결코 사도적이지도 않고 계시적이지도 않다...그리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다고 말 할 수도 없다. 게다가, 루터는 성경의 기자가 기록한 명령과 경고(요한계시록 22:18, 19)를 좋아하지 않고, 그 가운데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그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축복의 약속도 좋아하지 않는다. 또한, 많은 교부들이 요한계시록을 거부했다.

---

80 1926년에 캔터베리의 대주교인 William Temple가 말씀 하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시대에 가장 위대한 발견은 복음에 의하여 장대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기독교의 역사에 신학이나 종교서적에 대단히 미미하게 기록되었지만, 사실 우리에게 엄청난 계시입니다. 확실히, 공관복음서에 더 이상 확대 할 수 없을 정도로 장엄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Personal Religion and the Life of Fellowship*, Longmans, Green & Co., 1926, p. 69).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신학은 복음이 상실 된 신학입니다.

(94p)

최종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다. 내 영은 요한계시록을 그대로 수용 할 수가 없다. 또한 내가 요한계시록을 존중하지 않는 충분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시거나 보여 주시지를 않으셨다. 그 후에 (1534), 루터는 기독도인들에게 요한계시록의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루터는 아직도 올바로 해석이 되기 전에는, 요한계시록은 감추어지고 침묵하는 성경이고,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해석이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요한계시록의 사도성 여부에 대한 의심은 남아 있었고 (1545년판의 머리말), 신약성경의 히브리서, 야고보서, 유다서를 인쇄 할 때에 요한계시록은 부록에 포함시켰습니다. "종교개혁"의 종합적인 목표는 유세비우스의 정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고, 따라서 약화되었던 히브리서, 배드로후서, 요한2서와 3서, 야고보서, 유다서와 요한계시록의 권위의 회복이었습니다. 쯔빙글리는 요한계시록은 "성경적인 책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칼빈까지도, "영적인 관점"에서 요한 2서와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제외 하였습니다. 81

> Olshausen은 "요한계시록에서 계시하시며, 모든 계시의 구성을 이루는 땅 위에 설립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 하지 못함으로, 성경의 최종적인 책이 루터에게는 흑암 처럼 되어 버렸다"는 말씀으로 위대한 개혁자의 맹점을 확실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우리는 땅 위에 설립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성경말씀의 핵심으로 구성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것처럼 구원의 복음의 심장이라는 것을 첨언하여야 합니다.

---

81 "Revelation, " *Hastings Dictionary of the Bible*, Vol. 4.

82 McClain,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p. 6.

(95p)

12

세례(침례)

필자는 성경 해석의 여러 부분의 난제를 40년이 넘도록 고민을 한 사람으로서,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세례(침례)에 관한 문제를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말씀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신념을 갖고 계신 믿음의 형제들께서, 세례(침례)는 기독교인들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형식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논쟁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신약성경에 의하면 두 종류의 세례(침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a) 세례(침례)요한에 의한 물세례(침례): b) 성령세례 –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독교인이 되는 세례 (침례)."

위의 설명에 주의 해 봅시다. 성경이 가르치시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위의 설명에는 중요한 사항이 빠져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종류가 아니고, 세 종류의 세례(침례)가 있게 됩니다. a) 요한이 베푼 세례(침례); b) 예수님께서 허락 하셨던 세례(침례); c) 성령세례.

거의 모두는 요한의 세례(침례)에 익숙합니다. 이 방법이 기독교인들의 세례(침례)가 되어 왔습니다. (사도행전 19:1-7). 기독교인의 사도적인 세례(침례)는 물과 성령에 의한 세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과 2절에, "예수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은 제자들에게 세례(침례)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침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베풀었을 지라도)." 요한복음 3:22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대 땅으로 가셔서, 그들과 함께 유하시며 세례(침례)를 베푸시더라". 예수님께서 물로 세례(침례)를 베푸셨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실질적인 침례가 위임자들인 제자들에 의하여 시행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실이 바로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세례(침례)의 형식입니다. – 즉 물로 세례(침례)를 받은 기독교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엄중하게 명령 하신 것은, *세상 끝 날까지*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그 엄중한 명령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침례)를 주라." (마태복음 28:19). 예수님께서 직접 명확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질서의 필수적인 구성요건입니다.

(96p)

사도들은 위와 같이 이해하고 수용하였습니다. 베드로가 1세기의 기독교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결코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4)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행전 2:38). 교회로의 입교는 전형적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나라의 복음을 믿음으로 세례(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12은 초창기의 신조입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침례)를 받으니."

이 진리를 뒷받침 하기 위한 누가의 말씀은 성령을 받은 후에라고, 이방인들이 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28장의 예수님의 명령은 따라서 집행해야만 한다고 강조를 하십니다. 베드로는 세례(침례)에 필요한 물을 찾으셨고 명령하시기를 "그들이 성령을 받았느니 세례(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 하십니다. (사도행전 10:47, 48). 사도바울이 요한의 세례(침례)만을 받은 사람들을 발견하고, 즉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독교적 물세례(침례)를 베푸셨습니다. (사도행전 19:5). 신약성경적 교회는 물세례(침례)가 성령세례로 교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지는 않았습니다. 이 두 가지의 세례(침례)는 성도가 예수님의 몸으로 연합되기 위한 표준화된 방법입니다. 베드로는 사역의 후반까지 "하나님을 향한 선한양심"으로서, "구원받는 표로서의 세례(침례)"를 말씀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21). 물론, 물에 "마술적"인 것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단순하게 순종을 하자는 의미이고, "순종은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의 순종".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지만, 하나님의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생명은 없고 하나님의 진노가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3:36).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않으면, 세례(침례)를 받았어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한 순간의 믿음이 아니고 인생전체를 받치는 믿음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은 은혜와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바울께서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6:17). 이 교훈에는 세례(침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식을 통하여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사도들이 말씀하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다는 의미입니다.

(97p)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교회로 입교를 하는 절차를 주셨습니다. 물로 세례(침례)를 받는 것은 죄를 떠나겠다는 공표이고, 하나님과 메시아를 섬기겠다는 확신입니다. "육체적인 형식" 혹은 "율법주의"는 기도교의 사도적 물세례(침례)를 잘 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물로 세례(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 3:21).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세례(침례)를 베푸셨고 (요한복음 4:1),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세상 끝날 에, 재림 하실 때까지 믿는 자들에게 세례(침례)를 베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수백만의 성경독자들과 지식이 있는 성경주석가들이 수세기 동안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던 간단한 말씀을 놓고, 분리가 되거나 이견이 생길 필요는 없습니다. 전도자들은 현대의 복음적 방식이 베드로의 회개와 세례(침례)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경에 대한 대화"의 기록에서, R. T. France는 말씀 하시기를,

> 세례(침례)를 상징적이고 선택적으로 보거나, 혹은 회심의 단계의 한 부분적 행위로 포함시키려는 경향은 신약성경의 구원의 요건으로서의 세례(침례)에 대한 "실질적"인 말씀과는 모순이 됩니다. (예, 요한복음 3:5; 로마서 6:3, 4; 갈라디아서 3:27; 골로새서 2:12; 디도서 3:5; 베드로전서 3:20-21). 세례(침례) 그 자체가 사람을 기독교인으로 만든다는 근거는 신약성경에 없지만, 세례(침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결국은 같은 맥락입니다. "세례(침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믿음의 공동체에 입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S. Smalley).83

우리는, 성경을 배우면서도 세례(침례)의 행위가, 기독교인의 제자훈련의 일부분이 아니라는 거짓된 "영적" 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형제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것은 영적인 것과 행위적인 것의 분리를 조장한 영지주의자들의 거짓 가르침입니다. 물로 세례(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사도들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것이고, 우리도 순종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마음으로 믿는 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는 순수한 믿음의 고백은 없습니다. (로마서 10:9)

---

83 *Evangelical Quarterly*, 65:4, 1992, p. 306.

(98p)

13

예수님과 인생의 만사형통

거의 모든 인간들은, 생명을 무한정 연장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얻으려 할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은 영원히 살수 있는 방법에 대한 충격적인 비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 내신지라" (디모데후서 1:10). 가치평가를 할 수 없는 비밀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말씀/복음을 지혜롭게 믿음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영생"에 대하여 모호하게 말합니다. 영생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 합니다. 그 의미는 정확하게 "다가오는 세대의 생명"입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자주 말씀하신 유대적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엘서 12:2에, 잠자는 자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위대한 언약을 인용하셨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다니엘서 12:2), "[오는 세대]의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 것은 오는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에서의 부활 후에 벌어지는 세상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 하실 때에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부활합니다. (고린도전도 15:23). 위대한 말씀이신 다니엘서 12:2는 우리에게 죽은 성도들이 현재 어디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대단히 간단하게 말씀 하십니다.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기 전의, 현재의 상태를 가장 명료하게 말씀 하십니다. 그들은 잠을 자고 있다 – 의식이 없이. 이 진리는 소위 성모마리아나 "하늘로 승천한 성도"들이 "기도"를 한다는 헛된 거짓들에게 명확하게 증거되어야만 합니다.

다니엘이 먼저 말씀 하셨고, 신약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오는 세대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고, 오는 세대에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주어지는 생명입니다. 이 말씀은 "오는 세대"가 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시간은, 오는 세대 속에서도 계속될 것이고, 지구는 새로운 세대의 출발과 함께 능력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통치로 새롭게 회복 될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 사이에 번져가는 거짓 된 주장, 신비스러운 휴거가 발생하기 전의 7년이라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99p)

성경번역가들은 종종 독자들이 원래의 의미를 깨닫기 어렵게 만듭니다. 흠정역 (나름대로 훌륭하지만 어떤 구절은 대단히 잘 못되었습니다.)은 예수님께서 재림 하신 후에는 "아무 것도 없는" 즉, 재림이 모든 것의 끝으로 생각되게 만듭니다! 요한계시록 10:6이 아무 것도 없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의 의미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는다"입니다. 재림의 사건은 즉시 발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계속 흐르고,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설립되는 새로운 시대가 될 것입니다.

교회들은 성경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이해하게 어렵게 만들어 왔습니다. 교회들이 기독교인들의 최종적인 목적지를 "하늘"이라고 말을 해 오고 있지만, 성경의 말씀은 정반대 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미래의 유업으로서 "땅"을 말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편 37:11을 인용하셔서, 성도들의 최종적인 목표를 땅 혹은 지구를 (마태복음 5:5) 유업으로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하여 의미심장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이 그러하였듯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준비로서 현 시대를 살아가는 필수적인 방법의 가르침 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에 모든 세대의 믿음의 성도들이 "티끌" (다니엘서 12:2) 가운데서 깨어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을 기업으로" (마태복음 5:5) 상속 받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과 함께 "땅 위"의 통치자가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10; cp. 요한계시록 20:9 땅 위에 성도들의 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전 말씀에 의하면 (요한계시록 5:9),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죄사함의 화목제로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언약의 피"를 말씀 하셨고, 약속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표본으로 사도들을 말씀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협의/계약/약속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누가복음 22:29, 30). 우리 생각에, 어떤 성경은 "허락"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더 정확하게 "약속"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 단어는 사실 "약속"이라는 의미입니다.

(100p)

예수님께서는 "피의 언약"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20)

새로운 모세로서, 새로운 여호수아로서의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땅 위에 설립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 하셨습니다. 이 것은 옛적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땅의 약속"의 재확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마태복음 24:14)이라고 말씀 하시는 것은,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인간의 영생에 대한 계획의 종합적인 제목을 말씀 하신 것입니다. "율법서" (토라)는 모세를 통하여 말씀 하신 것처럼, 모세보다 더 큰 분이 새로운 토라의 요약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으로 말씀 하신 것입니다.

족장 아브라함은 성경에 믿음의 조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좇아가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4:16). 그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상속자 들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아브라함에게 미리 선포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8).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어진 거룩한 약속은 신약성경의 견고한 기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땅 (재산)과 후손 (자손)이 약속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주관적인 약속은 "씨와 땅"입니다. 씨나 후손은 다수이거나 혹은, 특별한 해석으로, 그리스도의 한 분 일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16). "땅"은 약속의 땅이고, 정확하게 약속된 땅입니다. (히브리서 11:9). 약속의 땅에서 족장들은 언젠가는 이 땅이 하늘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로 홀연히 변할 것이라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방인처럼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9). 거룩한 약속에 의하면 그 땅은 사실 그들의 소유였지만, 그들은 죽을 때까지 땅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인 사라를 묻기 위하여 작은 필지의 땅을 구입하였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복음의 진리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9). 약속의 땅이, 이 땅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하늘"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약속의 땅은 중동지역에 있습니다. 그 지역은 약속의 땅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지역이 바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입니다. 메시아이신 의의 왕은 그 땅을 접수하기 위하여 재림하시고, 통치권을 땅 위의 전역으로 확대 하실 것입니다.

(101p)

약속의 땅은, 예수님께서 전해 주신 구원의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의 나라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동일한 내용으로 두 가지로 표현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마태복음 5:5), 혹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거룩한 약속에 의하여 천국이 그의 것임이요." (마태복음 5:3). 84. 아브라함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족장들은 부활을 해야만 합니다. 부활을 해야만 거룩한 약속의 상급과 유업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참조: 히브리서 11:13, 39, 40).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 할 때 (주기도문과 같이, "나라이 임하옵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믿음의 성도들이 부활하여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잠을 자고 있는 자, 다니엘서 12:2), 땅 위에 설립되는 새로운 세대의 축복된 보좌에 앉게 될 것입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3:28, 29).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신속하고 부지런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이 것이 바로 복음의 모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곳의 입성함을 얻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라고 말씀 하십니다. (마태복음 6:33). 다른 모든 목표나 행위는 두 번째로 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설교말씀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 (마가복음 1:14, 15), 그리고 마태가 복음이라고 표현하는 명사의 의미는 항상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4:23; 9:35; 24:14; cp. 26:13). 예수님께서 사역의 내용을 설명 하실 때에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지속되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중점을 두어야만 할 것입니다.

---

84 유대인적 표현인 "천국" (마태만이 사용했습니다)은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나라의 근원은 거룩하고 천상적이라는 의미이지, 하늘에 위치하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예수님께서 땅 위의 예루살렘에 통치권자로 취임 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늘에 유보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4; 골로새서 1:5).

(102p)

이러한 복음의 내용들이 현대의 "복음"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누가복음 24:47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회개"와 "죄사함"은 오직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복음의 계시로만,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11과 12절 처럼, 하나님 나라의 영접 (마태복음 13:19)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신앙에 필수 사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경고는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마가복음 8:38). 예수님을 그의 말씀으로 부터 분리시키는 것은, 어떤 대가를 치루더라도 막아야만 하는 중대한 신학의 파탄입니다. 사탄은 사실 전략이 하나인데, 다양한 위장술을 사용하여 예수님을, 예수님의 말씀/복음복음부터 분리를 시키는 것입니다. (참조: 요한2서 7-9; 디모데전서 6:3).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믿으라고 (마가복음 1:14- 15,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독교의 핵심) 다급 하실 정도로 외치시는 것은, 다가오는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통치 할 사람들을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계획"이 있으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선 죽으셔야 하는 것도 알고 계시고, 부활하신 후에 잠시 이 세상을 떠나 계셔야 하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현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오른 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땅 위에 설립되는 때가 되면 아버지를 떠나, 땅 위로 재림 하실 것입니다.

시편 110:1은 이 진리를 확증하는 가장 소중한 성경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 사도들의 "확증적인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에 23번 인용되었고, 구약성경을 인용하는 빈도수가 가장 많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중요성은 광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말씀 하시는 개혁적이고 중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편 110:1 말씀의 의미는 절대적입니다. (만일 당신의 성경책에 "신탁적 계시"라는 단어가 생략되었다면 원본으로부터의 해석이 빈약한 것입니다.) 그 말씀은 "여호와 (히브리성경책에 의한 유대인들과 신약적 기독교인들의 신앙인 한 분 하나님)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나타나실 다윗의 주님이신 메시아께 1000년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다윗이 주님이라는 칭하는 존재가 두 분인데, 한 분은 일반적인 호칭(lord – 소문자)이고 한 분은 특수적인 호칭 (Lord – 대문자)입니다. Revised Version of the Bible (1881)은 다른 번역문에서 대문자로 표기하여 특별적인 호칭(Lord)으로 번역된 오류를 수정하였습니다. 무엇이 다른 것인가? 예수님은 누구 이신가에 대하여 엄청나게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103p)

예수님은 주님 (Lord – 대문자로 표기된 특별적 호칭)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에 의하여 창조주를 의미하는 단어는 아니고, 최고로 높은 인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의미하는 특별적 호칭의 주님 (Lord, 대문자)이 아니고, 한 분 하나님의 유일한 대리권자로서 최고로 높여져야 하는 인간입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 랍비나 구약성경을 히브리어로 읽을 수 있는 사람께 조언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10:1에서 말씀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히브리어 단어는 *adoni (아도니)* 입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 성경에서 195번 표기 되었으나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으로 표기 된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의 "주님 (Lord, 대문자)은 *Adonai*로 표기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와 인간을 세밀하게 구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주님 하나님(Adonai) 이시고, 개별적인 이름이 사용 될 때에는 여호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존재로서 죄가 없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인자(人子), 즉 사람의 아들이십니다. (*adoni,* 내 주, 누가복음 1:43; 2:11). *Adonai*는 구약성경에서 449번 인용되었고 한 분 하나님의 존재를, 다른 모든 존재들 로부터 구별됩니다. *Adonai*는 시편 110:1에 하나님의 아들 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85 *Adoni*는 195번 인용되었으며 하나님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주님 (때로 천사적 존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을 의미합니다. 이 진리는 하나님은 오직 하나의 존재이고, 메시아는 두 번째 아담이신 "인간메시아" (디모데전서 2:5)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고 기본적인 성경의 진리를 모호하고 희미하게 만드는, 성경의 정경화 이후에 발생된 복잡한 신학논쟁이나 신조형성을 정리정돈 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성품을 완벽하고 일관성 있게 표현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고백하시는 말씀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요한복음 14:9).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8:28).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의지하여야만 하고 종속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제로 돌아가서

이 복음이 바로 예수님과 바울이 항상 대중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로 전파 하신 것입니다. 86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설교하신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온 세상에 동일한 메시지/복음을 전파 하라고 명령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1`9, 20).

---

85 불행하게도 다수의 저자나 주석가들이 이 점에 오류를 범했습니다.

86 마태복음 4:17, 23; 9:35; 24"14, 마가복음 1:14, 15; 누가복음 4:43; 사도행전 1:3, 6; 19:8; 20:25; 28:23, 31.

(104p)

이 명령이, 기독교인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 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아닌*,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 복음을 전파하기 때문에 저조하게 실천 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11을 사도행전 28:30, 31과 비교하면, 예수님과 바울은 "사람들을 영접"하여 즉시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오늘날에는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을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전파도 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잘못 생각하여, 이방인들을 위하여, 바울에게는 전혀 다른 복음이 주어졌다고 착각을 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바울은 오직 하나 뿐인 구원의 복음을 스스로 떠나는 행위, 즉 자기 자신을 자기가 스스로 저주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8, 9). 모든 인간에게는 오직 하나 뿐인 복음의 메시지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나라의 복음의 중요성은 과장 되어 질 수가 없습니다. 복음 안에는, 예수님께서 인생의 만사형통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지성적으로 수용하는 메시제를 주셨습니다. 영생의 메시지가 어떻게 주어지는 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선포되는 복음을 주의 깊게 듣습니다. 두 번째, 눈과 귀를 거룩한 계시의 말씀에 주목(참조: 에베소서 1:13)하는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깨닫고, 이 깨달음을 마음판에 새깁니다. 세 번째, 끊임없이 닥치는 방해공작과 근심걱정과, 물질적인 욕심을 모두 극복하며 (누가복음 8:15), 복음의 깨달음을 인생에 적용하는 삶은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씨와 땅의 예화로 복음의 전체를 명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 마채복음 13; 마가복음 4; 누가복음 8). 예수님께서는 이 위대한 신학적 "비유"를 통하여, 구원은 믿음으로 시작하여, 끝까지 지속되어 완성에 이를 수 있는 진행적이고 절차적이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설교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씨"를 지성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과 순종을 지키는 성도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13). 신약적 기독교인의 구원은 경주와 같습니다. 구원의 결승점은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로마서 13:11).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18, 15:20와,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8, 15:2),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출발의 총성이 울리고 나면 금메달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대학교의 오리엔테이숀에서 졸업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는 경주와 같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우리에 부어 주시는 하나님나라의 복음이, 바로 우리로 결승점을 향해서 뛰기 시작하게 만드는 출발신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13; 요한복음 6:63).

(105p)

영생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영생은 이렇게 얻어 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나라의 복음/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고 그 깨달음을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섬김으로 화답을 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비유로 말씀 드려서) 최상의 진주와도 같은 영생의 보물이 묻혀 있는 그 땅을 구입 할 정도로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영생을 추구한다면, 그 어떤 다른 것이 당신의 관심을 끌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에게 그 어떤 인생의 변화가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의 불꽃이 예수님을 거쳐서 믿는 자들에게 옮겨 붙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성경의 의미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일반적으로 "글씨"로 해석됩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영생의 메시지이고 어떻게 얻을 수 있을 것 인가. (마태복음 13:19, 하나님 나라의 말씀 = 마가복음 4:14, 말씀=누가복음 8:11, 하나님의 말씀).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도구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일부분이시고, 인간처럼 그 분의 뜻을 우리들에게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적인 도구인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원성을 우리 인간에게 나누어 주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끝이 없는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고(은혜로), 하나님의 "씨"를 나누어 주시고, 영생의 새로운 생명과 활력의 불꽃의 점화 혹은 보증금 – 첫번째 불입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1:14). "씨" 우리의 정신과 마음에 심겨질 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24은 구원의 서정을 훌륭하게 요약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복음의 메시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오는 세대의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마음판에 새겨서, 어려움/ 방해/ 고난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굳세게 지키는 지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감동을 받게 하시려고, 최상 가격의 진주, 혹은 모든 보화 중에 최고의 보화라는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106p)

예수님의 구원의 메시지는 씨라고 표현되었습니다. (누가복음 8:11). 그 씨는 우리의 마음 속에 심겨져야 합니다. 그 씨는 설교자에 의해서 심겨집니다. 그 씨는 "정직한 심령"으로 받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8:15). 그 씨를 "선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받은 자는 "*인내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8:15). 모든 성경의 저자는 동일한 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모든 저자들이 영생의 동일한 "공식"을 말씀 하셨습니다. 영생의 서정의 역학적인 면이나 과정의 시작은, 신약성경의 기자들이 모두 동일합니다. 야고보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고, 복음의 씨에 새로운 싹이 튼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18; cp.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요한복음 17:17). 말씀은 우리 안에서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야고보서 1:21).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마태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13:19). 야고보는 당연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알았습니다. 메시아의 최고의 대변인인 베드로는, 우리가 기억하는 구원의 절차를 확실하게 하여서, 거듭남으로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과정을 논리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야고보와 같이 복음의 말씀을 영생의 싹을 지니고 있는 "{썩지 않는 씨" (베드로전서 1:23)로 표현 했습니다. 그 씨가 하나님 존재의 본질을 전달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심겨진 씨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닮음으로서 하나님의 영원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심겨지고 자라나는 씨는 새로운 인간성의 뿌리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영생을 누리는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23-25). 새롭게 거듭나는 기적적인 역사에 필수적인 열쇠는 우리에게 선포된 "복음"입니다. (베드로전서 1:25). 이 메시지가 예수님 안에서 인간을 향한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사도요한도 씨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고, 그 씨가 어떻게 영생의 관점에서의 거듭남의 열쇠가 되는 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3에, 예수님께서 유대교 신학자에게 말씀 하시는 것을 기록하였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올 수가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영생은 없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씨;"가 없으면 거듭남도 없습니다. 요한은 나중에 성경독자들에게 거듭남은 씨로부터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도 역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씨와 땅의 엄청난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말씀 하시기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요한일서 3:9).

(107p)

거듭나기 위하여, 즉 영생을 얻기 위하여 절대로 필수적인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명료하게 말씀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8:17). "하나님 나라의 복음(말씀)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회개 할 수 없고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 (참조: 마가복음 4:11, 12).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대단히 치명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누가복음 8:12).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예수님의 영생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배가 갈릴리 호수가에 닻을 내린 후에, 랍비들의 지도자의 비범한 말을 들어 봅시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마가복음 4:11-13).

바울과 거듭남

바울도 역시 영생의 비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복음(갈라디아서 3:2)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갈라디아서 4:29)을 새롭게 할 때에 거듭날 수 있고, 회심 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기독교인은 영과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으로 거듭나서, "약속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 하십니다. (에베소서 1:13). 거듭남의 방편으로,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영과 말씀은, 둘 다, 창조적인 존재와 전능하고 기적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인간에게 영생의 불꽃을 점화 해 주시는 역사, 그리고, 오는 세대인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창세기 1:2, 3).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역사(행동)을 하십니다. (인간의 마음이 언어로 전달 되듯이,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 됩니다.)

(108p)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창조역사는 믿는 자들의 새로운 생명을 촉발 합니다. "성령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 갈라디아서 3:2).

바울은 디도에게 영생에 "관한 것"을 상기 시키십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예수님의 말씀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디도서 3:4, 5).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복음을 최초로 전파(히브리서 2:3, cp. 디모데전서 6:3)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이십니다. (요한복음 5:24). 예수님을 완전한 대리권자로, 또한 대사로 보내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말씀을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63).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운동력과 생명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13; 로마서 1:16). 이 말씀은 우리의 삶과 생각에, 하나님의 존재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는 영의 역동력을 불러 옵니다.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마음판에 새기면서 세례(침례)를 받고 (사도행전 8:12 등), 끝까지 지속적으로 선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선포하신 주님을 따르는 본을 보여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라는 사실을 증명하였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쌓아 둔 소망"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바울께서 말씀 하시는 소망은 기독교인의 믿음과 사랑의 원천입니다. (골로새서 1:4, 5). 믿음과 사랑의 원천인 "소망"을 거짓되게 이해를 하면, 기독교인의 믿음과 소망에 혹독한 손상을 입게 됩니다! 소망에 대한 질문은 "진리의 말씀(복음) 안에" (골로새서 1:5), 또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생각나게 하십니다. 바울은, 이 구원의 복음과 소망은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자라게 한다"고 설명하십니다. (골로새서 1:6). 다시 한번 예수님의 씨 뿌리를 자의 비유를 이해하게 해주십니다. 바울께서는 대중들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땅 위에 설립 될 새로운 세대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약속을 영접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히브리서 2:5)

(109p)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궁극적인 위대한 계획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메시아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위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땅은 새롭게 변화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누가복음 1:32).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시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창조능력에 의해서 구성 되어 질 것입니다. (누가복음 1:35; 마태복음 1:20 "마리아를 통한 독생자")

더 많은 사람들이 영생, 끝이 없는 삶, 멸망하지 않는 인생과, 예수님과 아버지와 영원한 교제를 하는 것을 사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 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임무는 예수님께서 설교하셨듯이, 영원한 생명, 최상의 진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근자에 영생의 관점에서의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창조적인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 속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씨/영의 능력이, 어떻게 거듭남에 작용하는 지의 설교를 근자에 들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이 복음의 전체라는 말을 듣고 가볍게 변화 합니다. 바울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은 복음 속에 "많은 진리 중에 가장 중요한 진리"라고 말씀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3 – 개역한글성경에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로 번역되었는데, 헬라어성경과 영어성경(NIV)는 "For what I received I passed on to you as of first importance.."되 번역되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의 전문가 였습니다. (사도행전 20:24, 25). 마태복음에, 25장의 분량,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의 기록대로 예수님께서 수년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설교 하시는 데에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사실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는 전혀 말씀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참조; 마태복음 16:21, 복음서에 처음으로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조들에는 영생에 관련된 구원의 메시지는 빠졌습니다. 신조들은 예수님의 출생을 믿으라고 요구하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한 탄생"),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생략되고, 바로 죽음으로 넘어갑니다. ("본디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110p)

예수님을,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분리시킨 믿음은 성경적 믿음이 아닙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2)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24).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구원에 대한 가르침을 거부하는 데에 대한 단호한 경고를 하십니다. 이 말씀보다 더 명백하게 표현하는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2:44-50; 마태복음 7:21-27).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메시아께서는 복음의 메시지를 영접하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은 사도적인 기독교의 신앙을 훼손시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17). 87

---

87 요즈음의 저명한 전도자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설교를 들을 때마다 당황을 합니다. "요즈음에, 많은 분들이 기독교의 필수 사항은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의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바울사도의 서신서들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에 대한 것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신약성경들을 살펴 보아도, 예수님의 가르침은 대단히 적은 회수로 인용되었습니다. 기독교인의 보편적인 신조인 사도신경에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는 별로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보여 주신 신앙의 자세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출생과 죽음의 이틀 동안의 사건만을 언급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핵심을 두지 않는 기독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 대신 죽으시는 일을 담당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 (D. James Kennedy, "Truths That Transform," 11/17/89, emphasis his).

(111p)

14

결론

B. F Westcott의 말씀은 지당합니다: "구약성경에는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이해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약성경은 하나의 거대한 예언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과 성도들이 통치하는 국가의 출현, 곧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가 예언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복음은, 신앙의 핵심으로 구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기독교 신학에 상당 부분 빠져 있습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의 복음이 도둑을 맞는 것과 같습니다.

Rodlof Otts의 분석이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종말론적인 견해로 보면 거룩한 심판인 "메시아적 진노"가 나타나는 미래의 마지막 세대까지 존재하고 남아 있습니다." 88

우리는 예수님의 미래의 계획 속에 "메시아적 진노"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마태복음 24:8). 이러한 재난들은 비유의 말씀처럼 현 세대에 준비작업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출현의 서막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지금 심령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19).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52). 메시지를 통한 곡식의 추수는,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 같이 빛나는 이 세대의 끝 날에 실행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43).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 하기 전에, 미리, 이 세대에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의 일부분을 맛 볼 것입니다. 성도들은, 영생하는 통치자로서, 그 나라가 실제적인 인간사회로서, 새로운 교육을 받아 새롭게 변화된, 더 좋은 세상의 정찰병처럼 미리 보고, 그 기쁜 소식을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2:3, 5).

---

88 *하나님의 나라와 인자*, Boston: Starr King Press, 1957, p. 10.

(112p)

교회에 다니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미래를 예수님과 믿음의 교회에 맡기셨다는 말을 이해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이 진리가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세상은 "아직" 예수님의 통치 하에 있지 않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재림 하시면서 예수님의 통치권 아래 있게 됩니다. (히브리서 2:5, 8). 사도행전 1:6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질문을 한 유대적 기독교인들을 무식한 사도들이라고 비난을 하는 것은 기이한 것입니다. 이 질문은 오순절날 밤에 예수님께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마가복음 4:34)를 들은 사도들에 의해서 답변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 하였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마태복음 13:51).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는 다가오는 거룩한 통치제도 하의 통치권을 제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28-30). 부활 하시고 6주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에 대하여 재차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3). 제자들은 배우고 이해한 진리들을 토대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는 때가 지금인가를 질문 한 것입니다. 이 질문은 많은 주석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잘못 된 질문이 아니고, 올바른 질문입니다.

> 질문자체는 유대인들의 메시아 나라에 대한 공통적인 사상이 반영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아직 주님의 사역의 본질에 대한 통찰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들이 40일 동안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세속적인 유대왕국에서, 메시아 측근의 높은 자리에서 통치를 한다는 기대를 버리지 못하는 것이 믿기 어렵다...이 것이, 초기의 사도들의 어리석음에 대하여 기록하는 저자의 서술입니다. 88

John Calvin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제자들에 대한 황당한 비판은, 그가 올바른 유대적 메시아관에 의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앙이 잘 못되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사도들이 제자들에 질문한 "유명한 마지막"에 대한 주석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 이니이까", 칼빈이 말 하기를, "이 질문보다 더 많은 오류가 있다...그들의 무식은 대단하다. 3년 동안의 심도 있고, 세밀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전혀 교육을 받지 못 한 사람과 조금도 다름없는 무식이다." 90

---

89 *The Century Bible, Acts*, London: Caxton Publishing Co., n.d., p. 126.

90 *칼빈주석, 사도행전,* ed. D.W. Torrance and T. F. Torrance, Grand Rapids: Eerdmans, 1965, p 25.

(113p)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비판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식한 사람은, 모든 성경의 기둥이 되는 유대적 기독교의 메시아 사상과 예수님의 다윗적 복음을 모르는 칼빈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의 핵심적인 진리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본질을 사도들이 잘 못 알고 있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고 불가능 합니다! 어디에서 든지, 예수님께서 땅 위의 "견고하고 실제적인 "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부인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나라의 회복의 때는 모르고,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는 길은 겸손과 희생과 섬김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는 질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며칠 후에, 사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여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아직도 예언자들이 미리 본 위대한 회복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 두리라." (사도행전 3:21).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도들의 믿음에 획기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1800년 동안의 반메시아적 사상과는 달리, 정직한 성경독자들의 명확한 이해와 같이, 히브리 예언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91 이제는 신학자들과 설교자들이 근거도 없이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을 해야 합니다. 비판을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회의주의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현 세대와 질서가 극적으로 변화되는 사건을 성취 시키시기 위해서 초월적인 인자께서 오시는 사건은, 인간과 세상과, 예수님께서 당대의 사람들에게 말씀 해 주시고, 또한 지나간 사상의 유물로 남겨진 시간과 지식에 대한 역사에 대한 믿음의 하나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92

---

91 미래에 다가오는 메시아 나라의 실체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없애 버리고, 5세기부터 주목된 정교회적 가르침의 종말론에 관한 다른 내용으로 대체했던 어거스틴에 의해서 전적으로 삭제 되었습니다." (P. Toon, ed,. *프리탄의 소개, 천년설과 미래의 이스라엘: 프리탄 종말론* 1600-1660, Cambridge: James Clarke, 1970, p. 13).

92 James McKinnon, *The Historic Jesus*, Longmans, Green & Co., 1931, p. 207

(114p)

만일 그 것이 사실이라면, 슬프게도 예수님은 실수를 저지르신 것이고 거짓 선지자로 몰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은 불신앙의 주석가들이 저지른 것이고, 신약의 메시아적 나라에 대한 그들의 혐오감은 하나님 나라의 전적인 약속을 거부하는 결과를 초래 하였습니다.

> 천사가 알려준 출생의 비밀을 갖고 있는 메시아는, 그의 혈통의 아버지 (조상)인 다윗의 위를 영원히 유지하는 왕의 모습으로 묘사되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예견 되었는데, 이 예견은 궁극적으로 망상일 뿐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계획하셨던 영적인 나라와는 비교 될 수 없다....현재의 신학 하에서, 천사와의 대화는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잘못된 관념의 소산이다. 말하자면, 오류적 예언해석과 이미 실질적으로 멸망한 다윗 왕국에 대한 회복의 예견을 토대로 하는 계시의 취지에 대하여 당혹스럽다. 93

다른 말로, "불쌍한 가브리엘이여! 모두 잘 못 되어구나." 그리고, 주석가들의 일관된 주장을 추가 하면, 사도들마저 사도행전 1:6에 "유대적" 나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나라의 보좌의 통치권을 약속하시고 (누가복음 22:28-30), 새로운 세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통치권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요한계시록 2:26, 3:21),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무지해 보입니다.

해석가 들과 전통적 기독교는 속히 새롭게 방향을 잡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통적인 사상으로 덮어버리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94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적 복음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세상의 구원자이신 유대지파의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현재는 아버지의 우편에 계시고, 재림하시어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통치 하실 것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20)

---

93 Ibid., pp. 5, 6

94 거룩한 말씀을 무효화 하는 전통에 대한 예수님의 비판은, 현 세대에는 타당하지 않은 것인가? (마태복음 15:8, 9)